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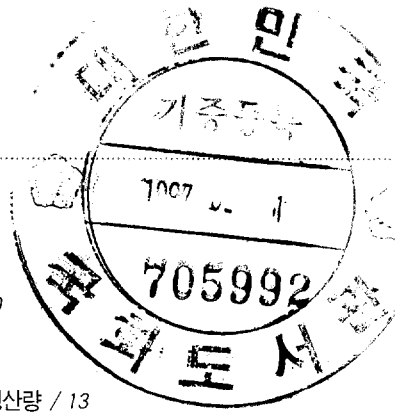
12001773

# 그림으로 본 농업통계

③

작물생산편

# 목 차



## I. 작물생산 현황 / 6

### II. 곡물류 생산현황 / 9

- 연도별 벼 재배면적 / 10
- 지역별 벼 재배면적 / 11
- 연도별 벼 생산량 / 12
- 연도별 단위면적당 벼 생산량 / 13
- 지역별 벼 생산량(조곡) / 14
- 지역별 벼 생산량(정곡) / 15
- 연도별 맥류 재배면적 / 16
- 연도별 맥류 생산량 / 17
- 맥류 품목별 생산 내역 / 18
- 맥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19
- 연도별 겉보리 생산량 / 20
- 연도별 쌀보리 생산량 / 21
- 연도별 맥주보리 생산량 / 22
- 연도별 밀 생산량 / 23
- 연도별 호밀 생산량 / 24
- 연도별 서류 재배면적 / 25
- 연도별 서류 생산량 / 26
- 서류 품목별 생산 내역 / 27
- 연도별 감자 생산량 / 28
- 연도별 고구마 생산량 / 29
- 연도별 잡곡 재배면적 / 30
- 연도별 잡곡 생산량 / 31
- 잡곡 품목별 생산 내역 / 32
- 잡곡 단위면적당 생산량 / 33
- 연도별 두류 재배면적 / 34
- 연도별 두류 생산량 / 35
- 두류 품목별 생산 내역 / 36
- 두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37

### III. 채소류 생산현황 / 39

- 연도별 과채류 재배면적 / 40
- 연도별 과채류 생산량 / 41
- 과채류 품목별 생산 내역 / 42
- 과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43
- 연도별 엽채류 재배면적 / 44

- 연도별 엽채류 생산량 / 45
- 엽채류 품목별 생산 내역 / 46
- 엽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47
- 지역별 배추 생산 내역 / 48
- 연도별 근채류 재배면적 / 49
- 연도별 근채류 생산량 / 50
- 근채류 품목별 생산 내역 / 51
- 근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52
- 연도별 조미채소류 재배면적 / 53
- 연도별 조미채소류 생산량 / 54
- 조미채소류 품목별 생산 내역 / 55
- 조미채소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56
- 지역별 고추 생산량 / 57
- 지역별 마늘 생산량 / 58
- 지역별 파 생산량 / 59
- 지역별 양파 생산량 / 60

#### **N. 과실류 생산현황 / 61**

- 연도별 과실류 재배면적 / 62
- 연도별 과실류 생산량 / 63
- 과실류 품목별 생산 내역 / 64
- 과실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65
- 연도별 사과 생산량 / 66
- 연도별 배 생산량 / 67
- 연도별 복숭아 생산량 / 68
- 연도별 포도 생산량 / 69
- 연도별 감귤 생산량 / 70

#### **V. 가축 사육 현황 / 71**

- 성별 한육우 사육두수 / 72
- 연령별 한육우 사육두수 / 73
- 한육우 사육규모별 가구수 / 74
- 연령별 젖소 사육두수 / 75
- 젖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 76
- 돼지 사육규모별 가구수 / 77
- 돼지 월령별 사육두수 / 78
- 닭 사육규모별 가구수 / 79
- 월령별 닭 사육두수 / 80

# 1. 작물생산 현황

## ▶ 쌀량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90년대 들어 유흥지증가, 공공시설 및 건물건축, 논밭 전환 등에 따라 연평균 38천ha씩 감소, 지난 '90년 1,244천ha이던 벼재배면적이 5년뒤인 '95년에는 1,056천ha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따라 쌀생산량도 계속 감소, 지난 '90년 5,606천톤(정곡기준)이던 것이 '95년에는 4,695천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쌀산업발전종합대책에 따라 앞으로 이와같은 감소추세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보리·밀 등 곡식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95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25%가 증가

보리·밀 등 맥류는 '90년대 들어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95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58천톤(25%)이 증가, 맥류생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결보리·쌀보리·맥주보리 등 보리류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20-30%의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밀은 우리밀살리기운동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5배에 가까운 엄청난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는 '95년에 374천ha에서 9,685천톤이 생산되어

지난 '95년 채소류는 전국적으로 374천ha에서 총 9,685천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곡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다소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채소류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지난 '90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소류중 참외·수박·오이등 과채류와 고추·마늘·양파등 조미채소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엽채류와 근채류는 5년전에 비해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과 경남·북지역에서 우리나라 채소류의 약 절반 가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 는 '90년대 들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에 따라 과실은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과실 재배면적은 174천ha로 5년전인 '90년에 비해 30%가 늘어났으며, 생산량도 작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5년동안 약 30%가 늘어 '95년에는 2,300천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북지역이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실 주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 백

## II. 곡물류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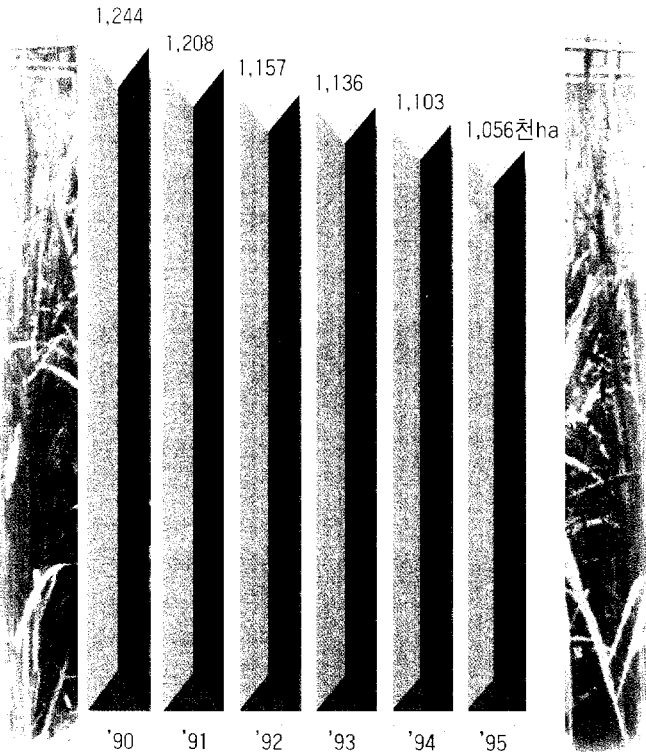
---

- 연도별 벼 재배면적
- 지역별 벼 재배면적
- 연도별 벼 생산량
- 연도별 단위면적당 벼 생산량
- 지역별 벼 생산량(조곡)
- 지역별 벼 생산량(정곡)
- 연도별 맥류 재배면적
- 연도별 맥류 생산량
- 맥류 품목별 생산 내역
- 맥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연도별 겉보리 생산량
- 연도별 쌀보리 생산량
- 연도별 맥주보리 생산량
- 연도별 밀 생산량
- 연도별 호밀 생산량
- 연도별 서류 재배면적
- 연도별 서류 생산량
- 서류 품목별 생산 내역
- 연도별 감자 생산량
- 연도별 고구마 생산량
- 연도별 잡곡 재배면적
- 연도별 잡곡 생산량
- 잡곡 품목별 생산 내역
- 잡곡 단위면적당 생산량
- 연도별 두류 재배면적
- 연도별 두류 생산량
- 두류 품목별 생산 내역
- 두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 연도별 벼 재배면적

### '90년대 들어 매년 38천ha씩 줄어들어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90년대 들어 유희지증가, 공공시설 및 건물건축, 논발전환 등에 따라 연평균 38천ha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1,244천ha 이던 벼 재배면적은 5년뒤인 '95년에는 1,056천ha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쌀산업발전종합대책에 따라 이와같은 감소추세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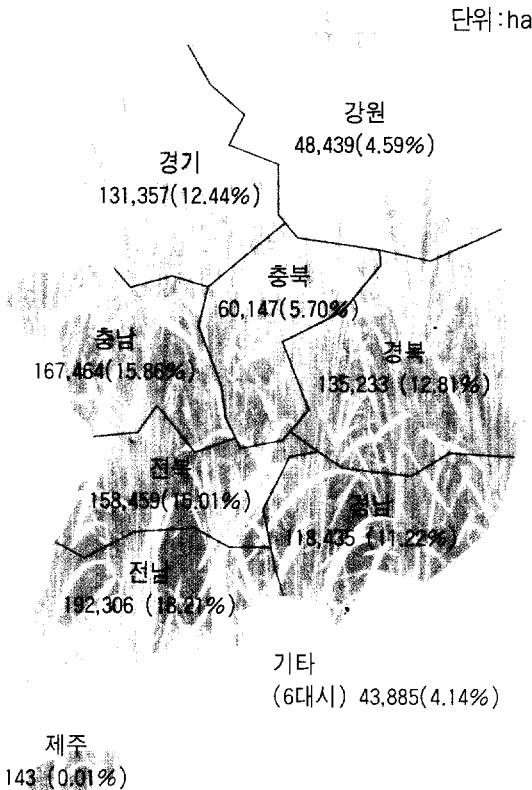




## ■ 지역별 벼 재배면적

### 전남지역이 192천ha로 전체면적의 18.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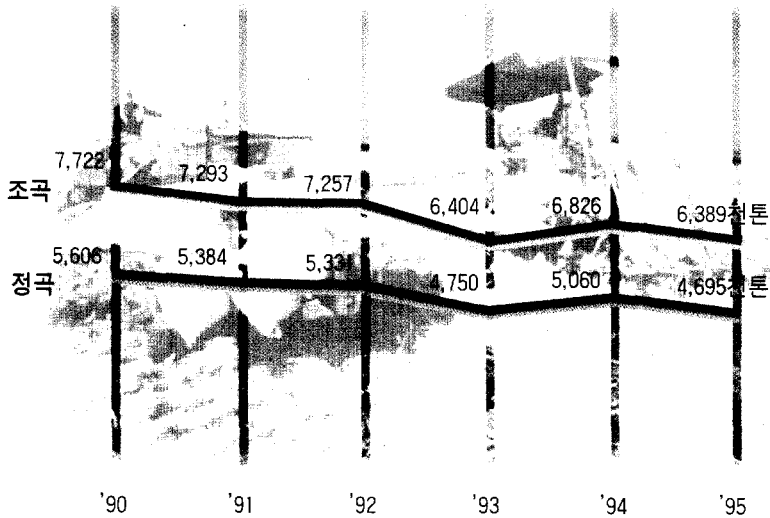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농도로 손꼽히는 전남지역이 192천ha(18.2%)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는 충남(167천ha, 15.9%), 전북(158천ha, 15%)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산악이 많은 경북·경남 지역은 135천ha, 118천ha로 각각 12.8%, 11.2%에 그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벼 생산량

###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매년 180천톤(정곡기준)정도 줄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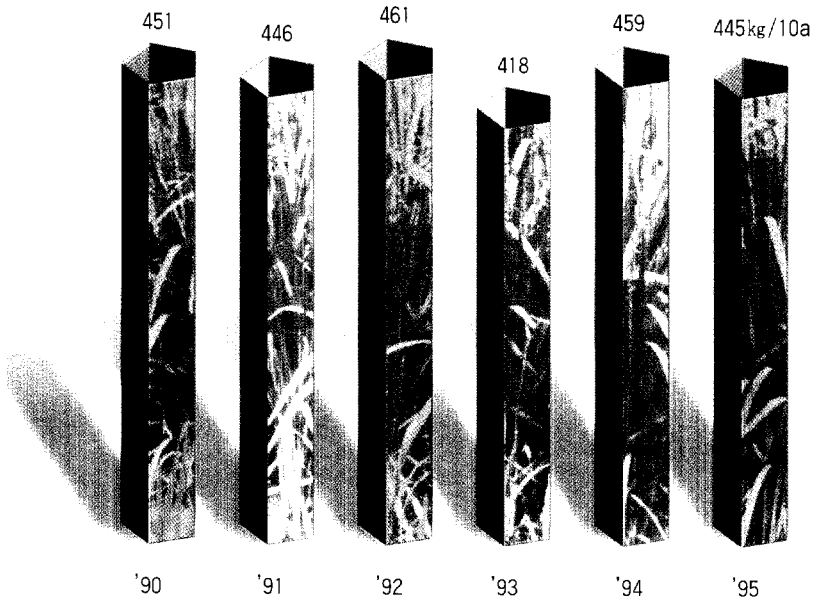
작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생산되는 벼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수확품종개발·재배기술개선 등에 따라 단보당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38천ha씩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벼 생산량도 정곡 기준으로 연평균 180천톤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5,606천톤(정곡기준)이던 벼 생산량은 '95년에는 4,695천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 연도별 단위면적당 벼 생산량

### 작황이나 기상여건 등에 따라 매년 등락을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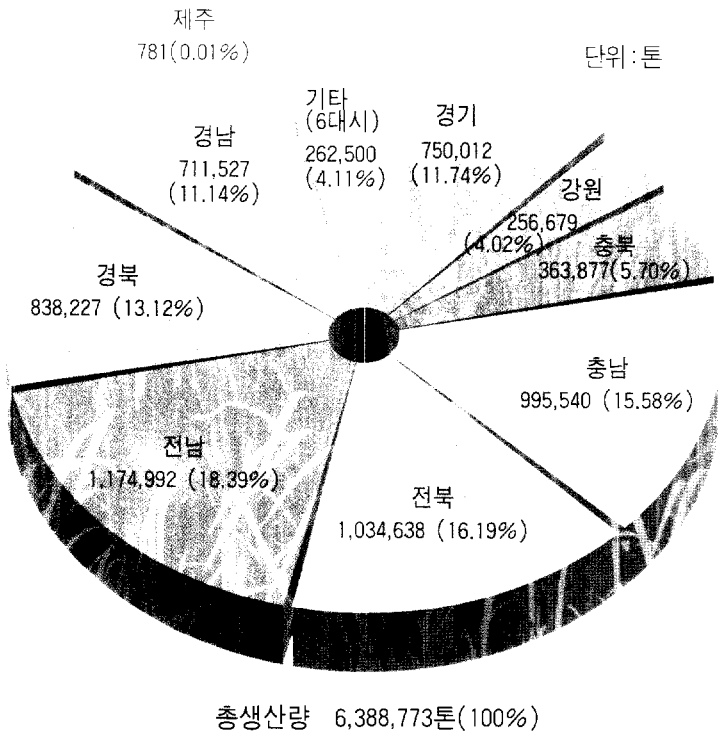
연도별 벼 생산량을 단위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10a당 생산량은 매년 작황이나 기상여건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에는 10a당 461kg으로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보였으나 이듬해에는 냉해 등에 따라 418kg으로 급격히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95년에는 한해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조금 적은 445kg을 기록하였습니다.



## ■ 지역별 벼 생산량(조곡)

### 전남지역이 1,175천톤으로 전체 벼 생산량의 18.4%를 차지

지난 '95년 우리나라 벼(조곡) 생산량 6,389천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벼재배면적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으로 전체의 18.2%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지역이 1,175천톤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과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 지역별 벼생산량 (정곡)

### 조곡과 마찬가지로 전남·전북·충남 순으로 생산량이 많아

지난 '95년 우리나라 벼생산량을 정곡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곡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생산량 4,695천톤중 전남지역이 868천톤으로 전체의 18.5%를 점유하고 있고 전북(767천톤, 16.3%)과 충남(720천톤, 15.3%)이 그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위:톤

강원 182,092(3.88%)

충북 269,449(5.74%)

기타(6대시) 193,785(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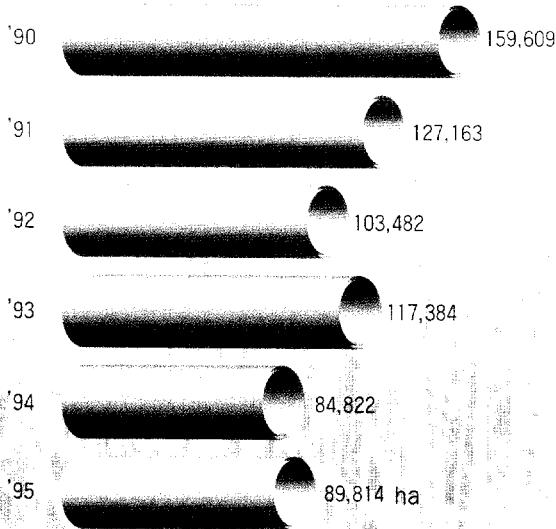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56,926 (11.86%)	719,676 (15.33%)	766,863 (16.33%)	867,529 (18.48%)	612,443 (13.04%)	525,640 (11.20%)

총생산량 4,694,956톤(100%)

## ■ 연도별 맥류 재배면적

### 매년 일정수준씩 줄어들었으나 '9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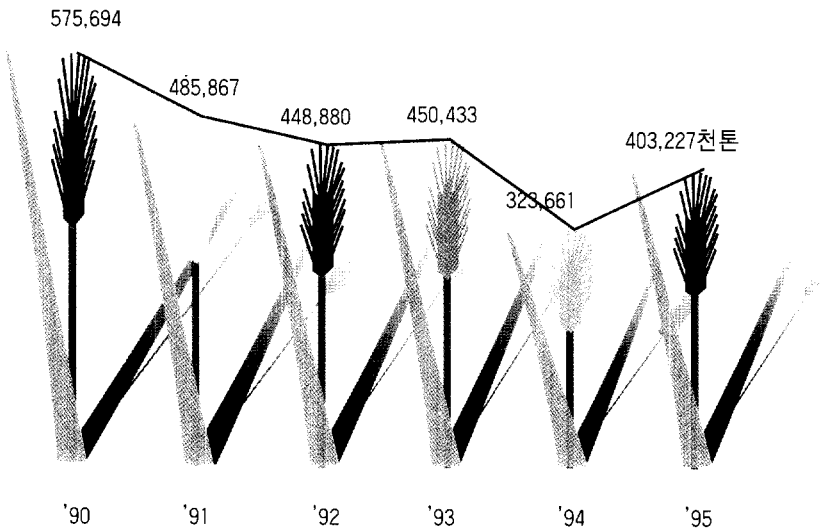
우리나라 맥류 재배면적은 지난 '90년의 160천ha 수준에서 매년 급격히 감소, '94년에는 절반 수준인 85천ha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9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 '95년에는 90천ha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밀·보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증가에 따라 이와같은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맥류 생산량(조곡)

### 매년 감소하였으나 '95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25%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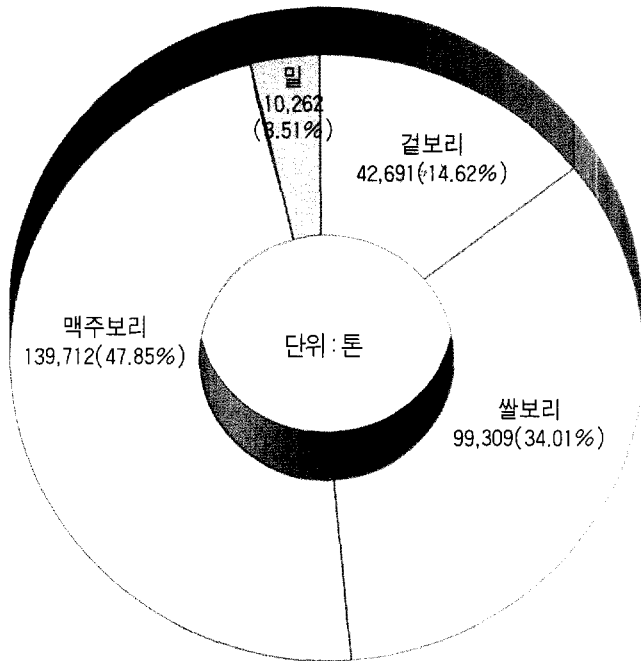
보리·밀등 맥류는 '90년대 들어 연평균 34천톤(약 6.9%)씩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95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80천톤(25%)이 증가, 맥류생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걸보리·쌀보리·맥주보리등 보리류가 전년대비 20-30%의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밀은 우리밀살리기운동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5배에 가까운 엄청난 증가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맥류 품목별 생산 내역(단위:정곡)

### 맥주보리·쌀보리가 전체 맥류 생산량의 82%를 차지

지난 '95년에 생산된 맥류 292천톤(정곡기준)을 품목별로 구분해보면 맥주보리가 140천톤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보리가 99천톤으로 34%, 겉보리가 43천톤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은 전년에 비해 5배가 넘게 늘어났으나 전체생산량은 10천톤 수준으로 전체맥류 생산량의 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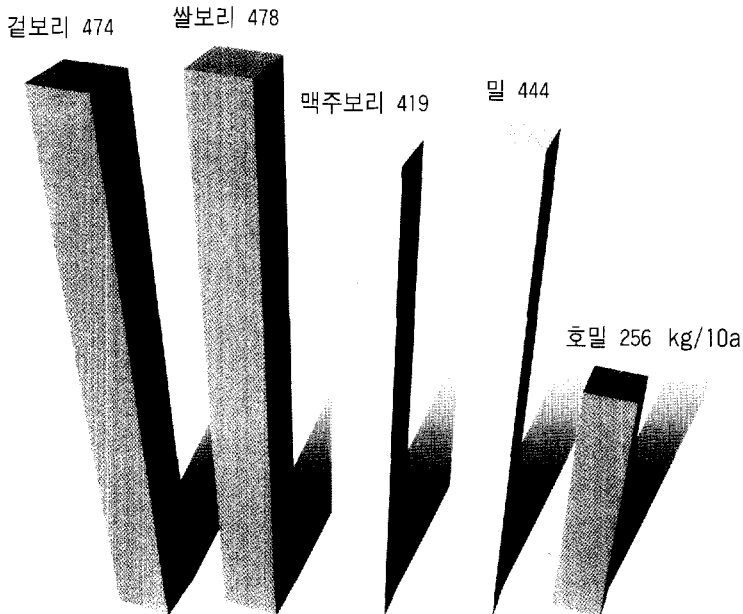
총생산량 291,987(100%)



## ■ 맥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겉보리·쌀보리가 10a당 470kg대로 비교적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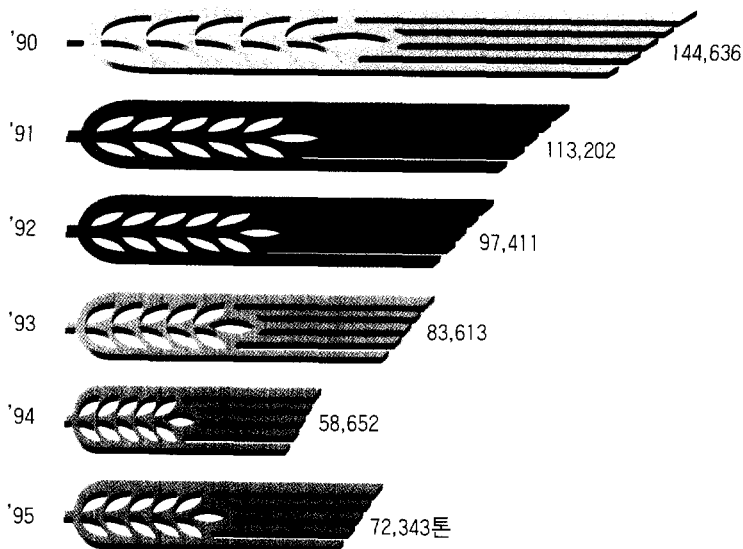
우리나라 맥류생산을 단위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겉보리·쌀보리가 10a당 474kg·478kg 수준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맥주보리와 밀이 10a당 419kg·444kg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호밀은 10a당 256kg의 생산량을 기록, 다른 품목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겉보리 생산량(조곡)

###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95년에 증가세로 돌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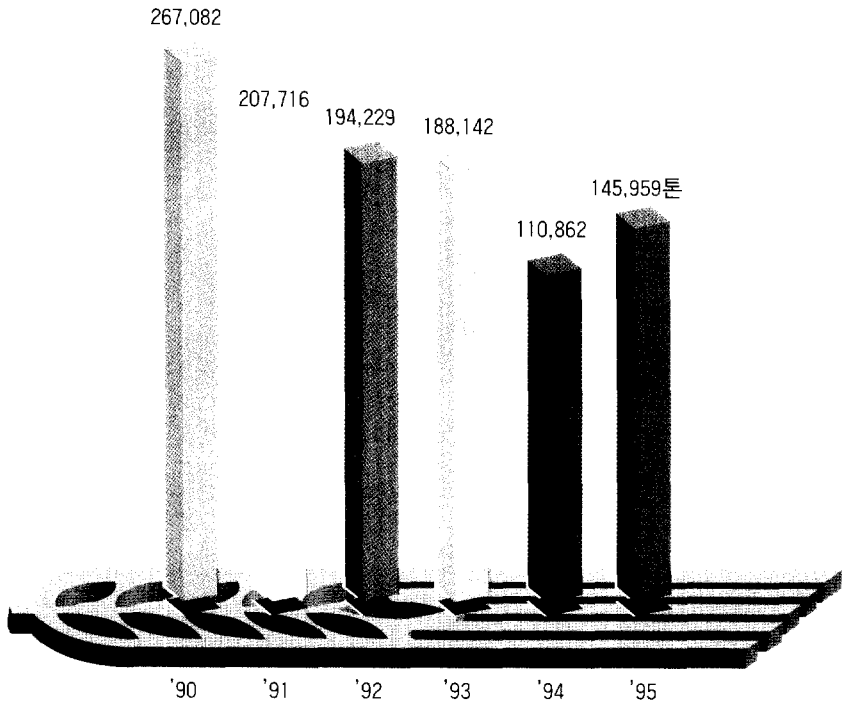
맥류중 겉보리 생산은 '90년 145천톤을 기록한 후 매년 급격히 감소, 지난 '94년은 약 1/3 수준인 59천톤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95년에는 72천톤으로 오히려 13천톤이 증가, 겉보리 생산이 앞으로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쌀보리 생산량(조곡)

### 겉보리와 같이 매년 줄어들다가 '9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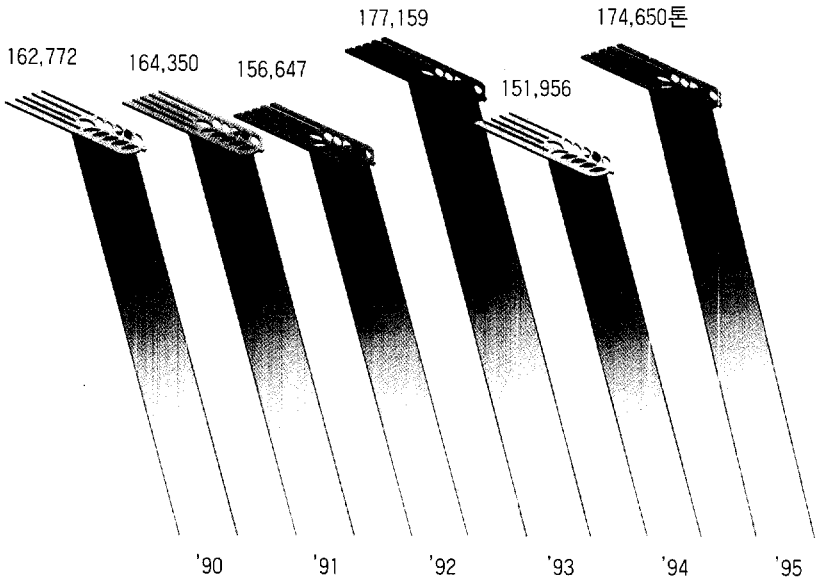
쌀보리 생산도 겉보리와 마찬가지로 매년 급격히 감소, '90년 267천톤이나 생산되던 것이 '94년에는 111천톤으로 약 6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에 비해 35천톤이나 증가한 146천톤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맥주보리 생산량(조곡)

### '95년에는 175천톤으로 전년대비 23천톤이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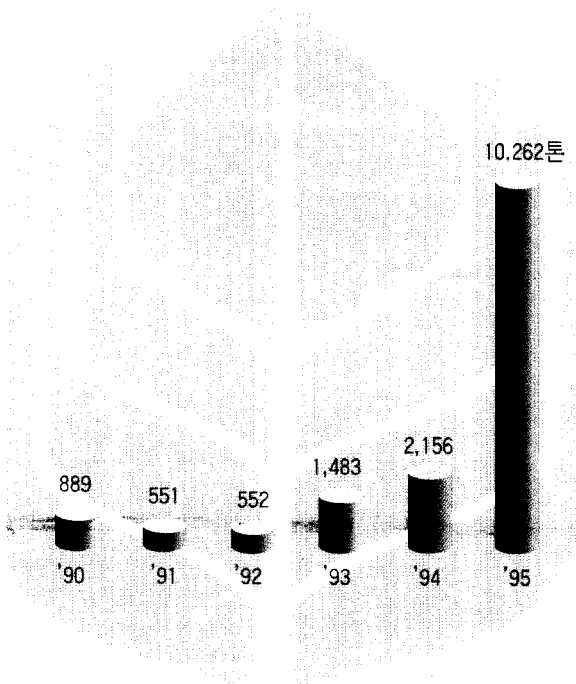
우리나라 맥주보리 생산량은 작황에 따라 다소의 증감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90년대 들어 큰 변동없이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163천톤이던 맥주보리 생산량은 '93년에는 한때 177천톤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며, '95년에는 175천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밀 생산량(조곡)

### '95년에는 전년대비 500%의 엄청난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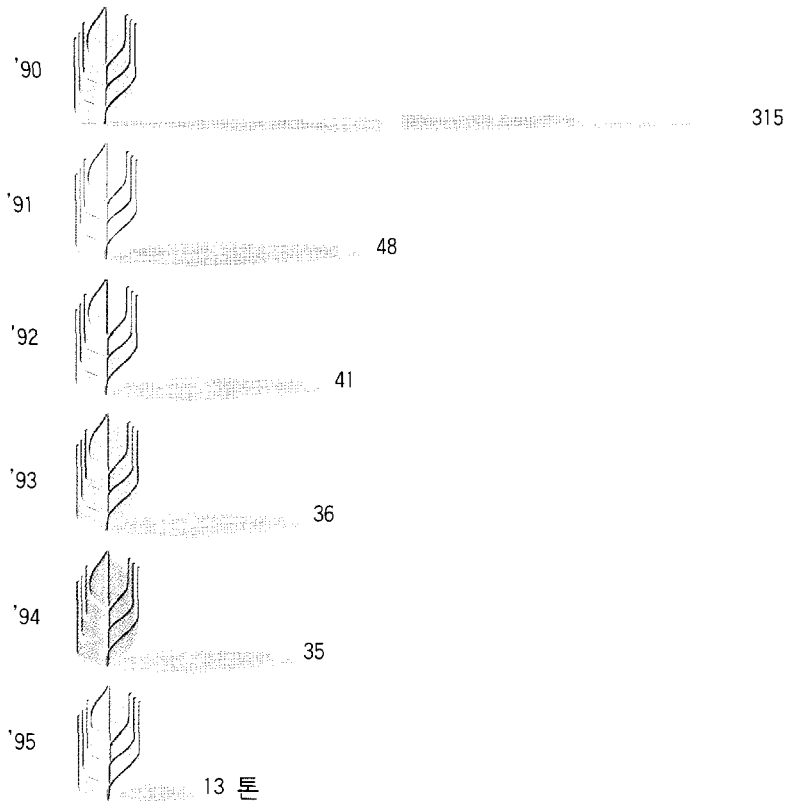
우리나라 밀 생산량은 한때 550톤 수준에 불과해 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우리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증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5년에는 전년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증가세를 기록,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증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호밀 생산량(조곡)

### '95년에 13톤을 생산,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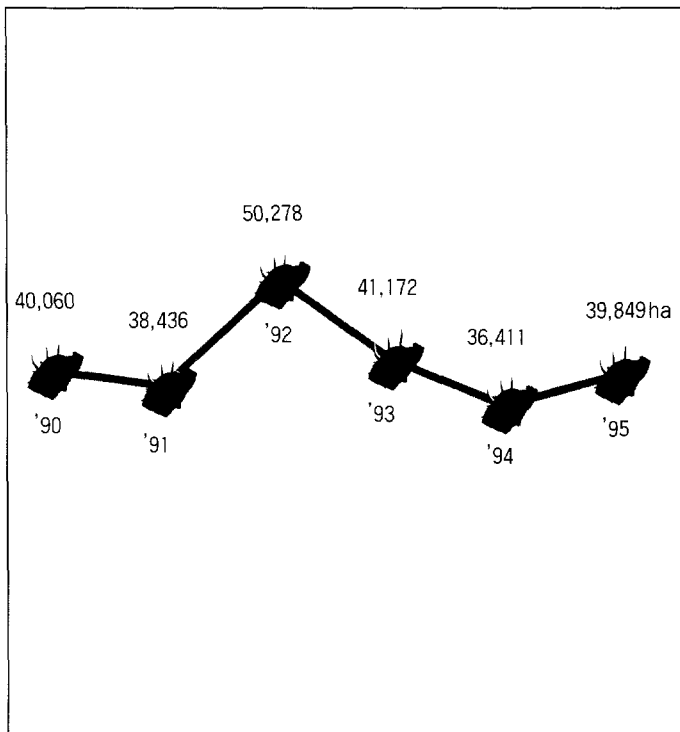
지난 '95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호밀은 약 13톤에 불과, 호밀 생산은 거의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5년전인 지난 '90년에는 한때 315톤까지 생산되기도 했지만 이듬해 48톤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매년 30톤 내외의 생산량을 유지,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도 경남과 충남지역에서 8톤, 5톤씩 생산될 뿐, 다른 지역에서는 호밀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 연도별 서류 재배면적

### 매년 큰 변동없이 40천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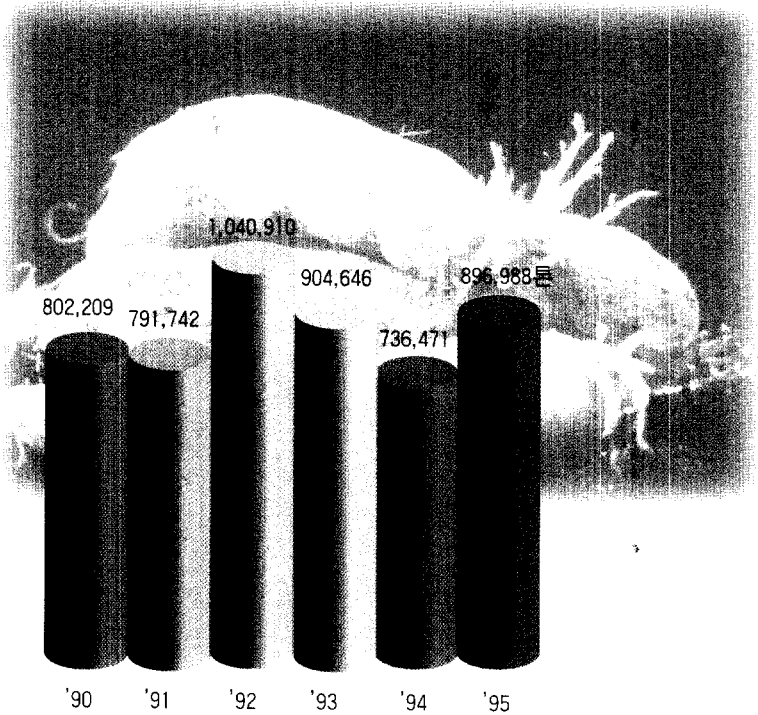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 서류 재배면적은 약 40천ha로 집계되었으며, '92년 한때 50천ha까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없이 40천ha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나 맥류 재배가 크게 뒤떨어진 강원과 제주지역이 각각 7,811ha, 7,052ha수준으로 전남(7,490ha)과 더불어 서류 재배면적의 약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서류 생산량

### '92년에는 1백만톤을 넘어섰으나 '95년에는 897천톤으로 줄어

우리나라 서류 생산은 매년 작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802천톤의 생산량을 보였던 서류는 '92년에는 1,041천톤으로 1백만톤을 넘는 생산량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95년에는 897천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19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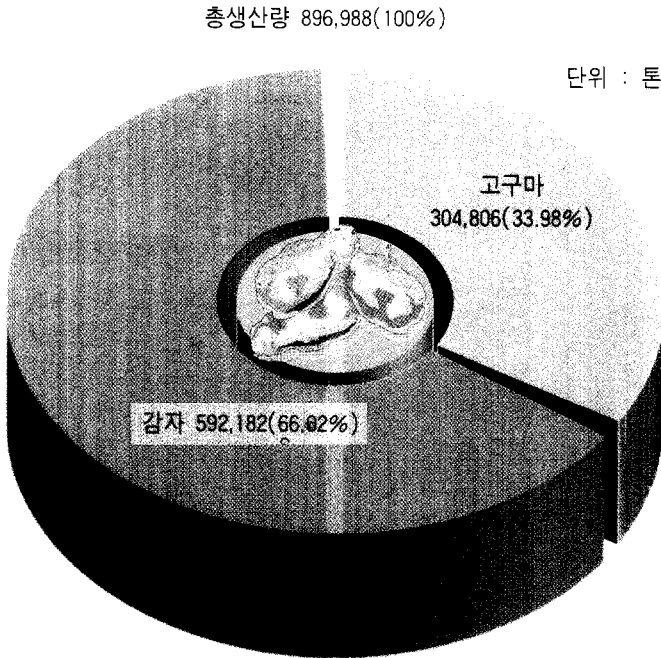




## ■ 서류 품목별 생산 내역

### 서류생산량 897천톤중 감자가 66%, 고구마가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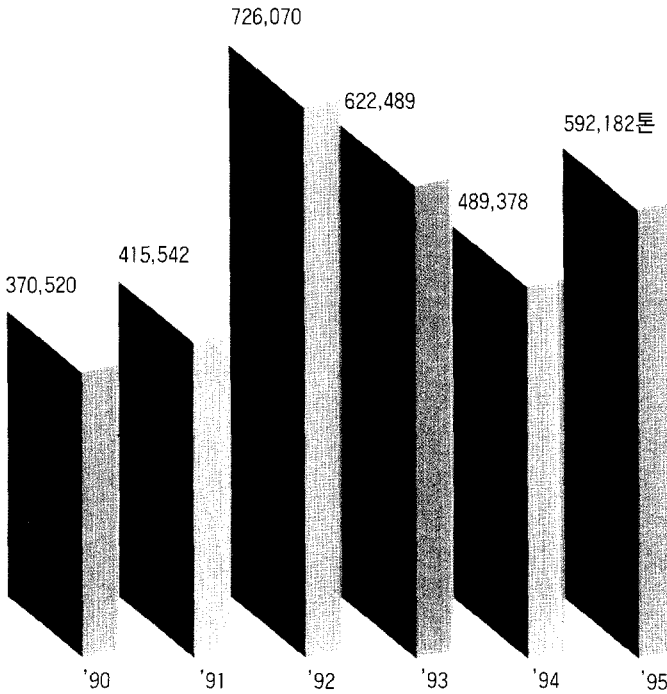
우리나라 서류 생산량 897천톤중에는 감자가 592천톤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구마는 305천톤으로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최근들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고구마는 '90년대 들어 매년 11%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하다 '95년에야 증가세로 돌아서는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연도별 감자 생산량

### '95년에는 592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21%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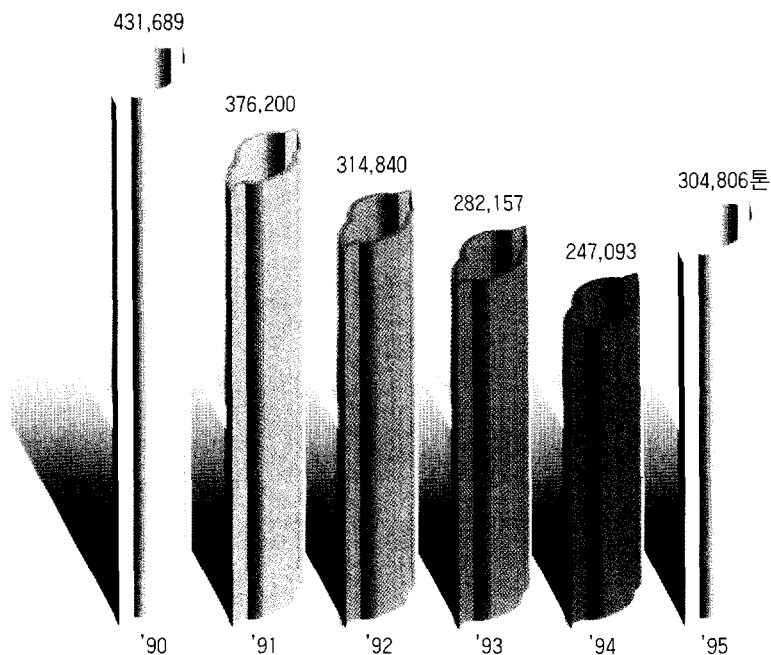
지난 '95년도 우리나라 감자 생산량은 592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2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감자생산은 '90년대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다가 '92년 726천톤을 정점으로 매년 약 100천톤씩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21%가 늘어났습니다.



## ■ 연도별 고구마 생산량

### 매년 꾸준히 감소하다 '95년에는 전년대비 23%가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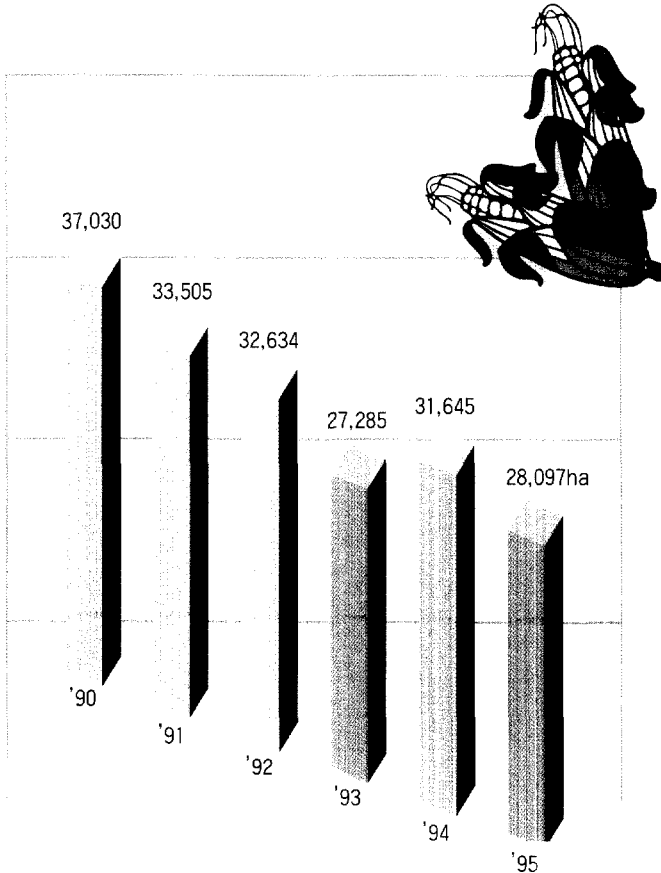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구마 생산은 '90년대 들어 연평균 11%내외씩 줄어드는 추세를 지속해 왔으나 '95년에는 305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23%가 늘어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지역에서 전체 생산량의 34%인 103천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연도별 잡곡 재배면적

### '95년에는 28천ha로 5년전에 비해 9천ha가 줄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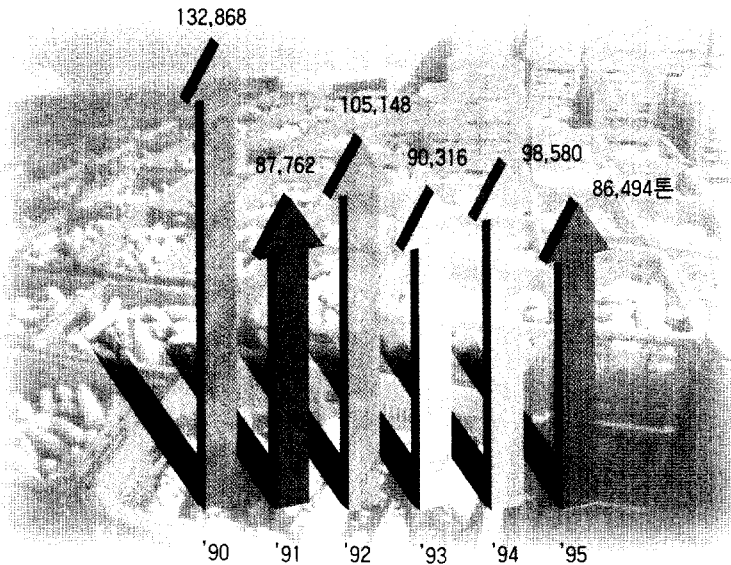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95년 한해동안 옥수수·조·수수등 잡곡재배에 이용된 농지는 총 28천ha로 5년전인 '90년의 37천ha에 비해 9천ha가 줄어들었습니다. 잡곡재배면적 28천ha중 옥수수 재배 면적이 18천ha로 전체면적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밀재배면적이 7천ha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잡곡 생산량

### 한해 늘어나면 이듬해 줄어드는 현상을 매년 반복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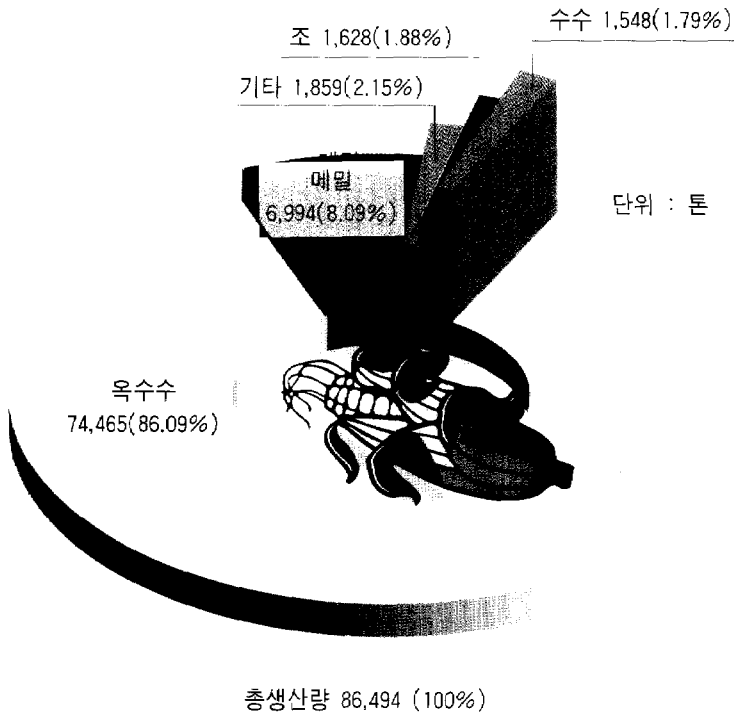
우리나라 잡곡 생산량은 한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 이듬해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해걸이 현상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133천톤을 기록한 후 '91년에는 88천톤으로 34%가 줄어들었으며 이듬해인 '92년에는 105천톤으로 다시 20%가 증가하는 등 급등과 급락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86천톤으로 '90년에 비해 35%가 줄어들었습니다.



## ■ 잡곡 품목별 생산 내역

### 옥수수가 74천톤으로 전체 잡곡생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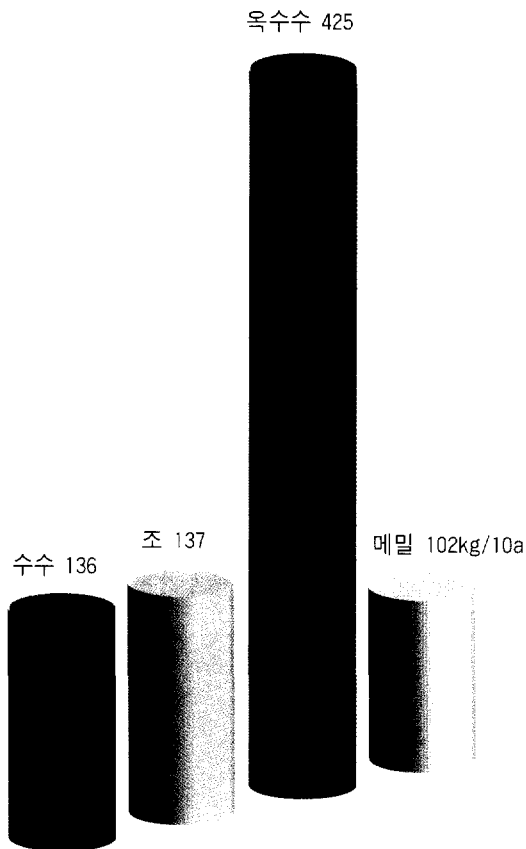
지난 '95년 잡곡생산량 86천톤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74천톤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밀이 7천톤(8%)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수수는 1.6천톤, 1.5천톤으로 전체 잡곡 생산의 1.9%, 1.8%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 ■ 잡곡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 옥수수가 10a당 425kg으로 비교적 높은 생산량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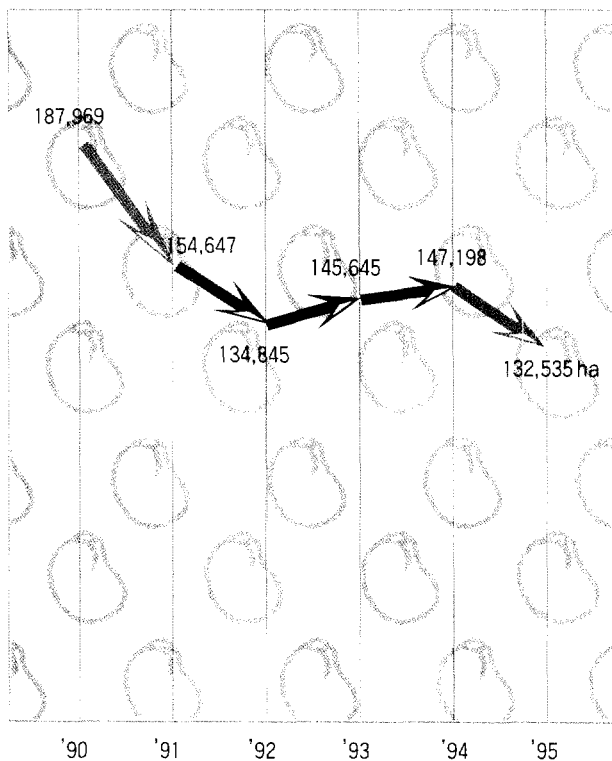
지난 '95년 잡곡 생산량 86천톤을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10a당 425kg으로 비교적 높은 생산량을 보인 반면, 메밀은 10a당 102kg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수는 각각 10a당 137kg, 136kg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두류 재배면적

### '95년에 133천ha로 '90년에 비해 55천ha가 줄어들어

지난 '95년도 두류재배면적은 133천ha로 5년전인 '90년도의 188천ha에 비해 55천ha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이 37천ha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경북으로 19천ha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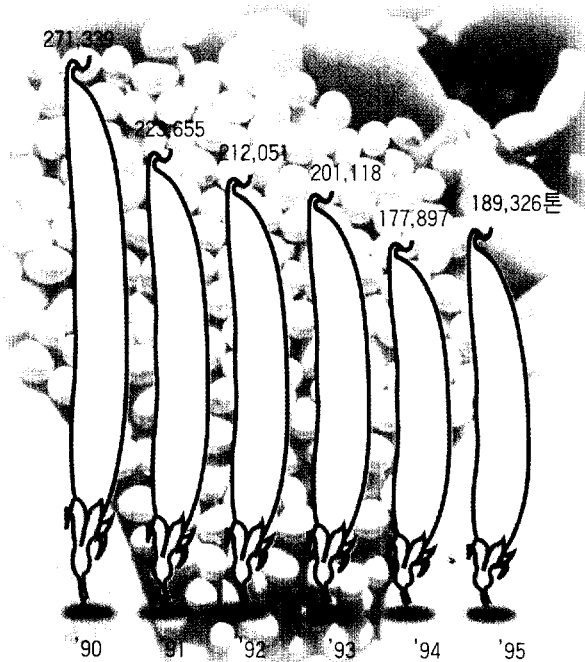




## ■ 연도별 두류 생산량

### 매년 7-8%씩 줄어들었으나 '95년에는 6%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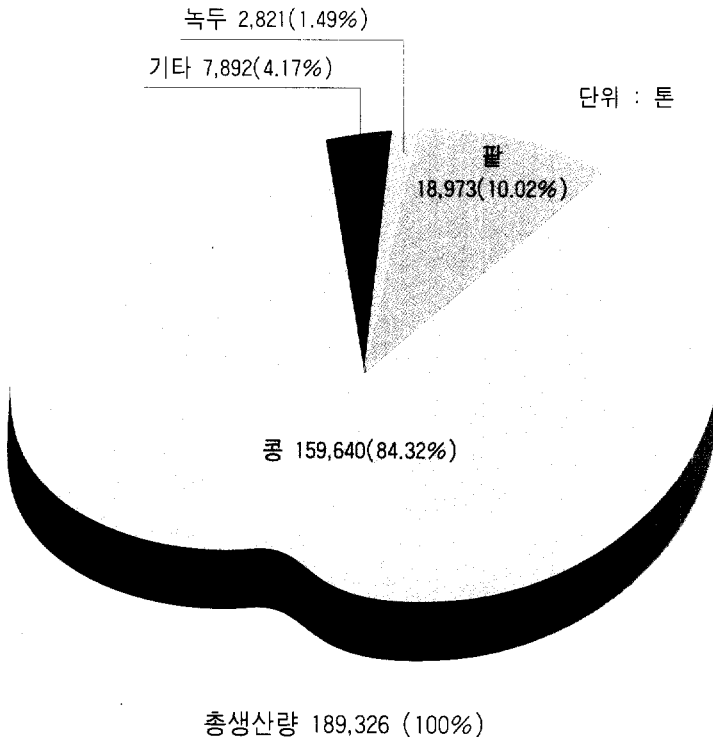
우리나라 두류 생산량은 '90년 271천톤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95년에는 189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10천톤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58천톤)과 경북(27천톤)지역이 85천톤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남으로 20천톤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두류 품목별 생산 내역

### 콩생산량이 160천톤으로 전체 두류 생산량의 8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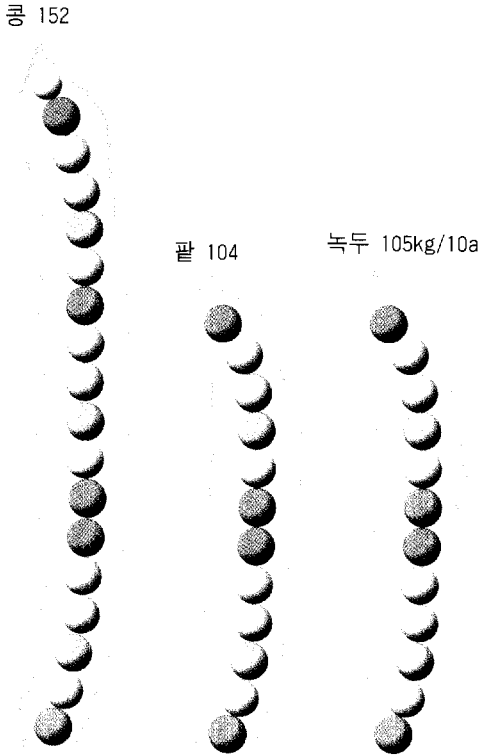
지난 '95년 두류 생산량 189천톤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콩이 160천톤으로 전체 두류 생산량의 84%를 점유하고 있으며 팥이 19천톤으로 약 10%, 녹두가 3천톤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두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콩이 152kg으로 비교적 많은 반면, 팥과 녹두는 상대적으로 적어

지난 '95년 두류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품목별로 비교해보면, 콩이 10a당 152kg으로 비교적 많은 생산량을 보인 반면, 팥과 녹두는 각각 104kg, 105kg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 백

### Ⅲ. 채소류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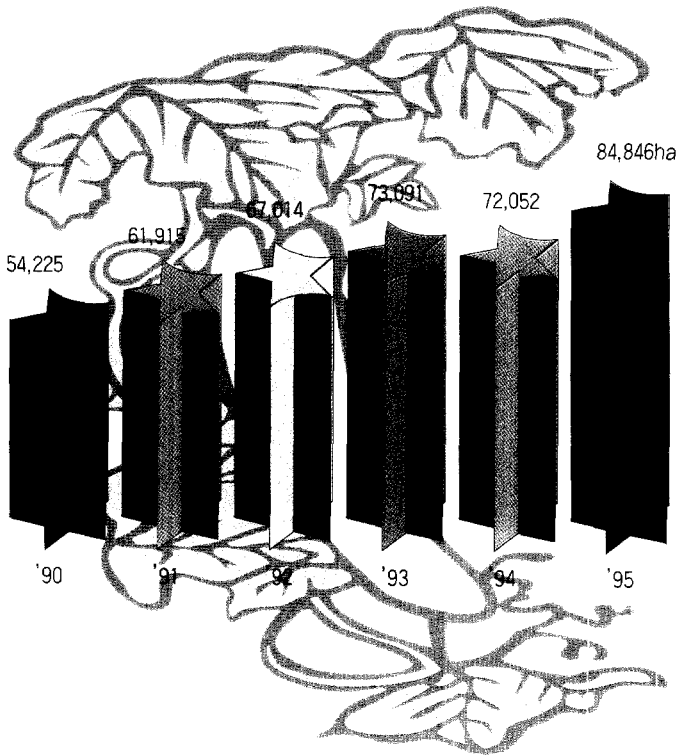
---

- 연도별 과채류 재배면적
- 연도별 과채류 생산량
- 과채류 품목별 생산 내역
- 과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연도별 엽채류 재배면적
- 연도별 엽채류 생산량
- 엽채류 품목별 생산 내역
- 엽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지역별 배추 생산 내역
- 연도별 근채류 재배면적
- 연도별 근채류 생산량
- 근채류 품목별 생산 내역
- 근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연도별 조미채소류 재배면적
- 연도별 조미채소류 생산량
- 조미채소류 품목별 생산 내역
- 조미채소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지역별 고추 생산량
- 지역별 미늘 생산량
- 지역별 파 생산량
- 지역별 양파 생산량

## ■ 연도별 과채류 재배면적

### '95년에 85천ha로 5년전에 비해 31천여ha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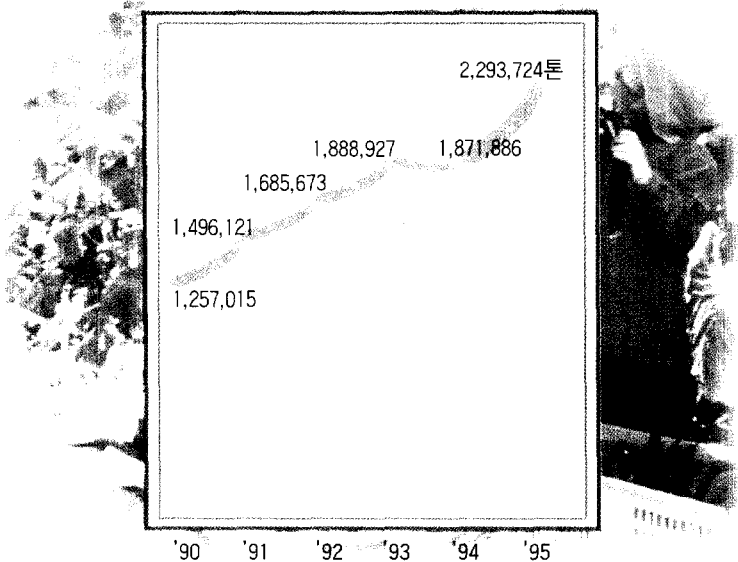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참외·수박·오이등 과채류 생산을 위해 사용된 농지는 총 85천ha로 5년전인 '90년에 비해 31천여ha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과채류 재배면적은 '90년대 들어 매년 크게 늘어났으나 '94년 72천ha로 약간 감소한 뒤 '9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남이 17천ha로 가장 넓고 전남이 15천ha로 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과채류 생산량

### '95년에는 2,294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422천톤이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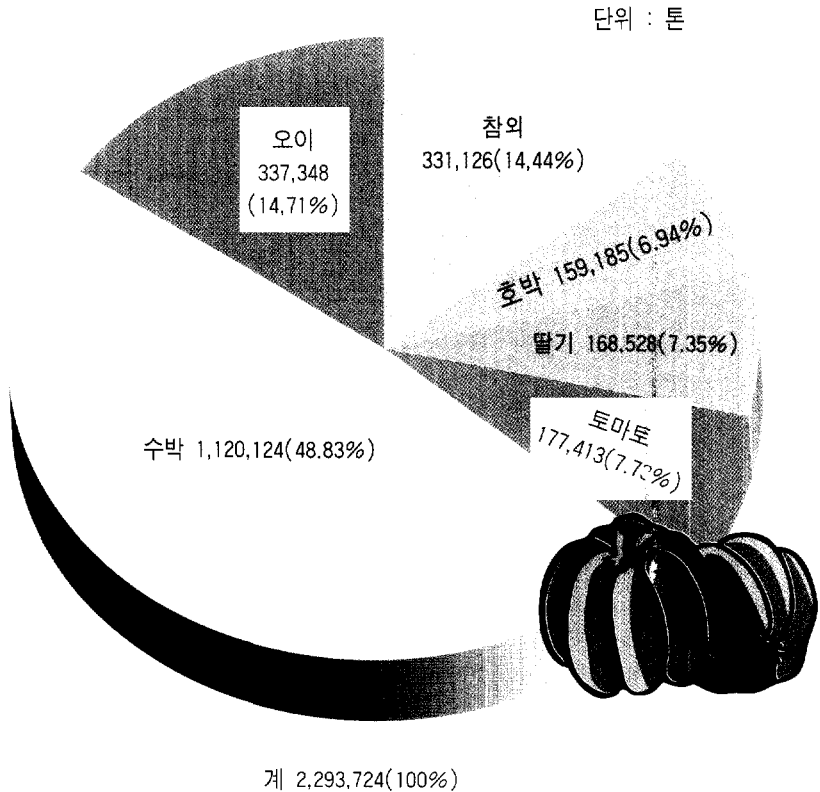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 과채류 생산량은 2,294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422천톤이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남이 467천톤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지역이 432천톤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 과채류 품목별 생산 내역

### 수박이 49%, 오이가 15%, 참외가 14% 수준으로 나타나

지난 '95년 과채류 생산량 2,294천톤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박이 1,120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이가 337천톤(15%), 참외가 331천톤(14%)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외에 토마토가 177천톤으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딸기와 호박은 각각 169천톤, 159천톤 수준으로 전체 과채류 생산량의 7%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 ■ 과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토마토가 4,518kg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

지난 '95년 과채류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품목별로 비교해 보면 토마토가 10a당 4,518kg으로 과채류 중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인 반면, 호박이 2,248kg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토 다음으로는 오이가 3,947kg, 참외가 2,760kg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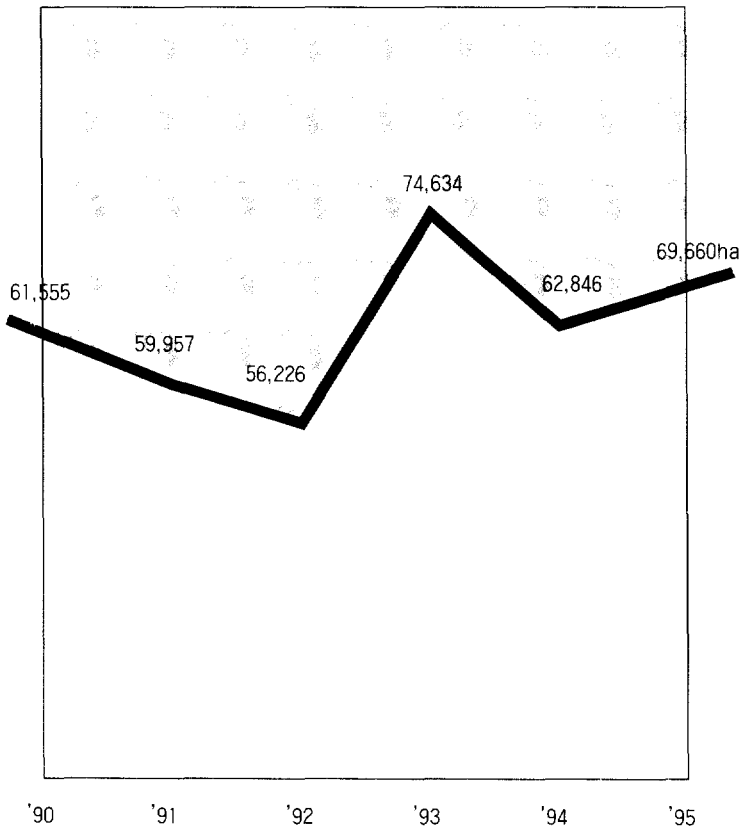
단위 : kg/10a



## ■ 연도별 엽채류 재배면적

### '95년 70천ha로 '90년에 비해 8천ha 이상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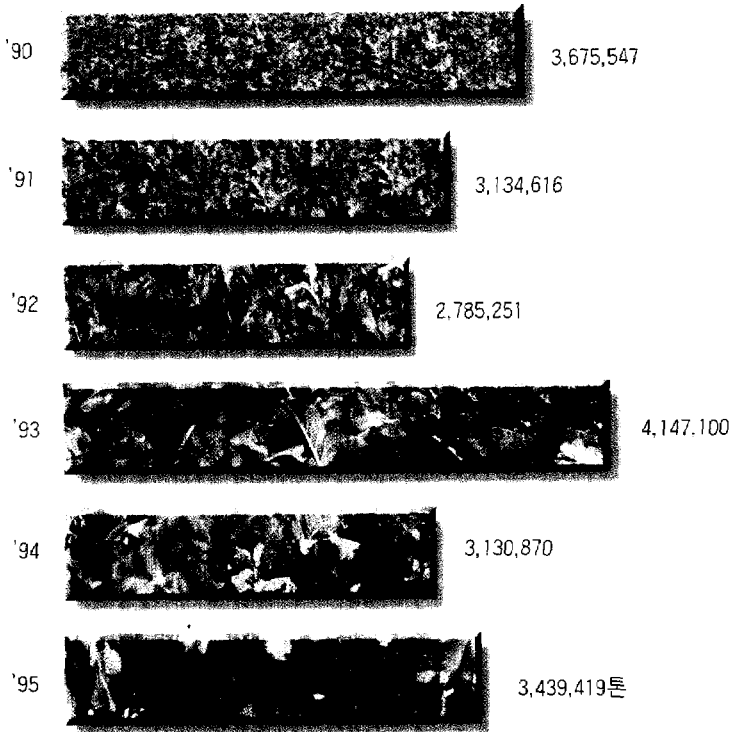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배추·양배추·시금치등 엽채류 생산을 위해 활용된 농지는 70천ha로 '90년의 62천ha에 비해 8천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강원·전남이 각각 10천ha가 넘는 재배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전북·경북·경남이 각각 5천ha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 연도별 업체류 생산량

### 매년 작황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

업체류 생산량은 매년 작황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3,676천톤의 생산량을 보였던 업체류는 '92년 2,785천톤으로 1백만톤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이듬해에는 4,147천톤으로 생산과잉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94년 다시 3,131천톤으로 1백만톤이 넘게 감소한 뒤 '95년에는 3,439천톤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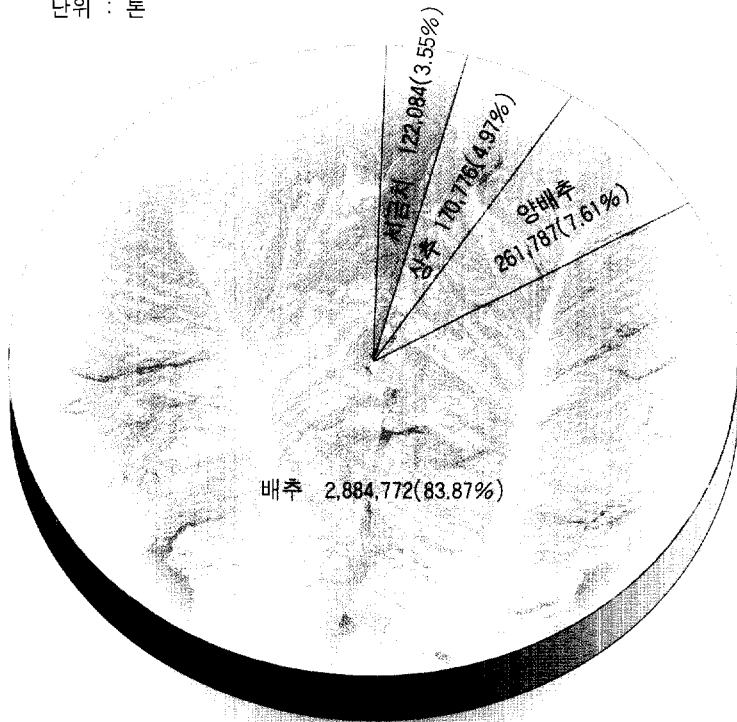


## ■ 업체류 품목별 생산 내역

### 배추생산량이 2,885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84%를 차지

지난 '95년 업체류 생산량 3,439천톤을 품목별로 비교해보면 배추가 2,885천톤으로 전체 업체류 생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배추가 262천톤으로 약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추나 시금치는 각각 171천톤, 122천톤 수준의 생산량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 업체류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위 : 톤



계 3,439,419(100%)

## ■ 엽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배추가 10a당 6,206kg으로 상당히 높은 생산량을 보여

지난 '95년 엽채류 생산량 3,439천톤을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배추가 10a당 6,206kg으로 상당히 높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10a당 3,936kg, 상추는 2,056kg의 생산량을 보인 반면, 시금치는 1,485kg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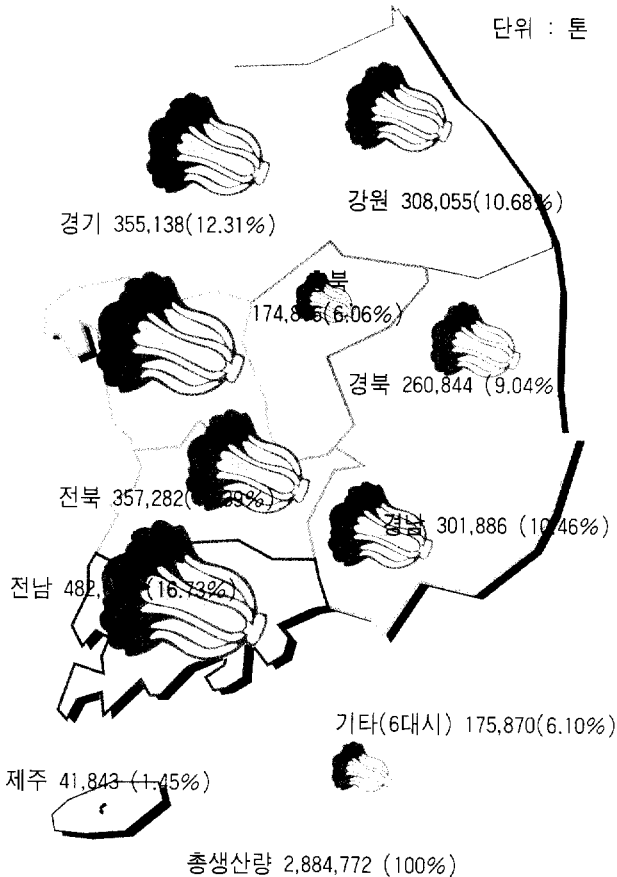
배추 6,206



## ■ 지역별 배추 생산 내역

### 전남·충남·전북 순으로 배추 생산량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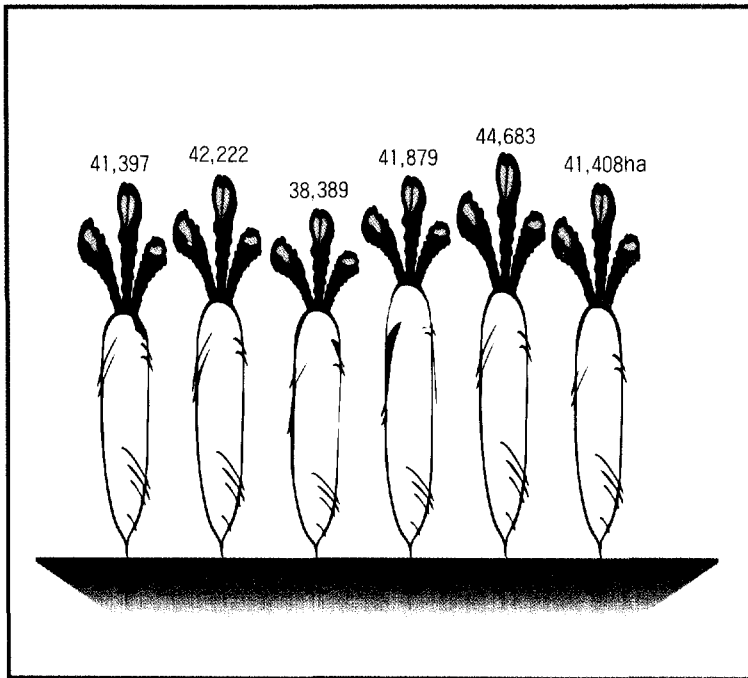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배추는 총 2,885천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해보면 전남지역이 483천톤으로 전국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다음으로는 충남이 426천톤(15%), 전북이 357천톤(12%)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로 유명한 강원지역은 308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근채류 재배면적

### 41천ha로 5년전과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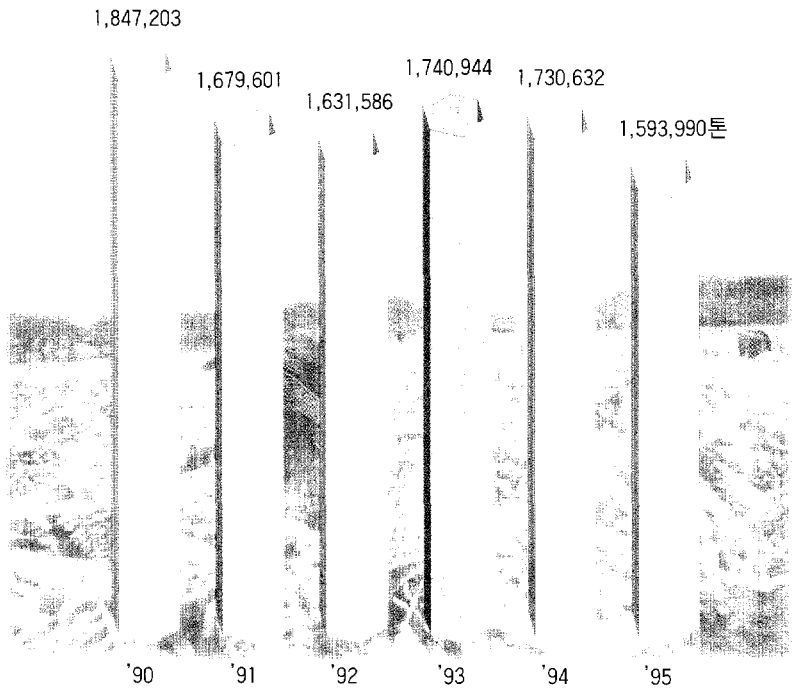
지난 '95년 무, 당근등 근채류 재배면적은 총 41천ha로 5년전과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와 전남이 각각 6.3천ha, 6.1천ha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북과 강원이 각각 5.8천ha, 4.9천ha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 ■ 연도별 근채류 생산량

### '95년에는 1,594천톤으로 '90년에 비해 253천톤이 줄어들어

우리나라에서 '95년 한해 동안 생산된 무, 당근등 근채류의 총량은 1,594천톤으로 '90년에 비해 253천톤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과 전북이 291천톤, 244천톤 수준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기(227천톤), 충남(162천톤)이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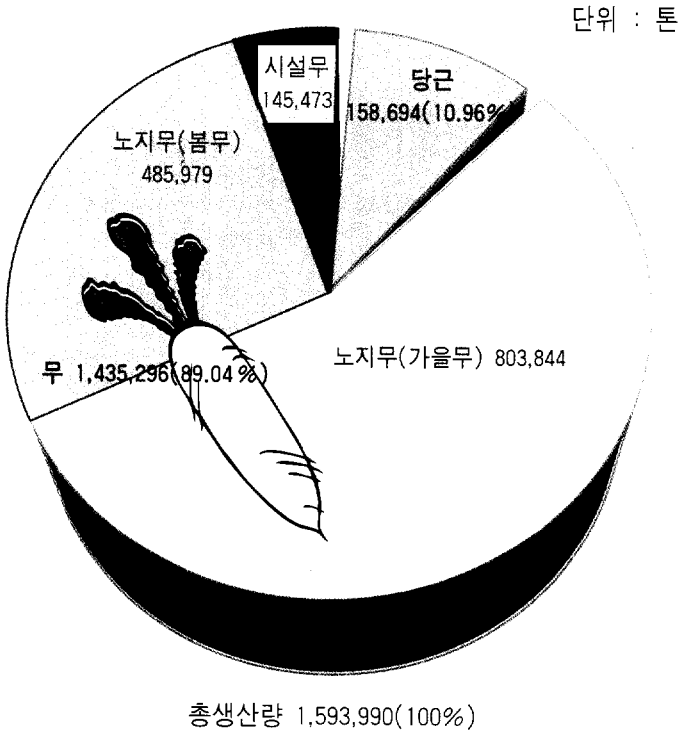




## ■ 근채류 품목별 생산 내역

### 근채류 생산량 1,594천톤의 90%가 무, 10%가 당근

지난 '95년 근채류 생산량 1,594천톤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 생산량이 1,435천톤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가 당근 생산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생산량 1,435천톤을 다시 구분하면 노지무가 1,290천톤으로 90%인 반면, 시설무는 145천톤으로 1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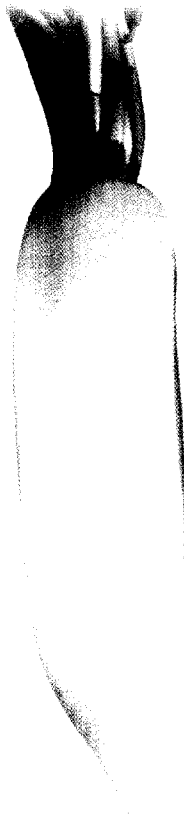


## ■ 근채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무는 4,041kg, 당근은 2,694kg으로 나타나

무, 당근등 근채류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살펴보면, 무는 10a당 4,041kg으로 상당히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당근은 10a당 2,694kg으로 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 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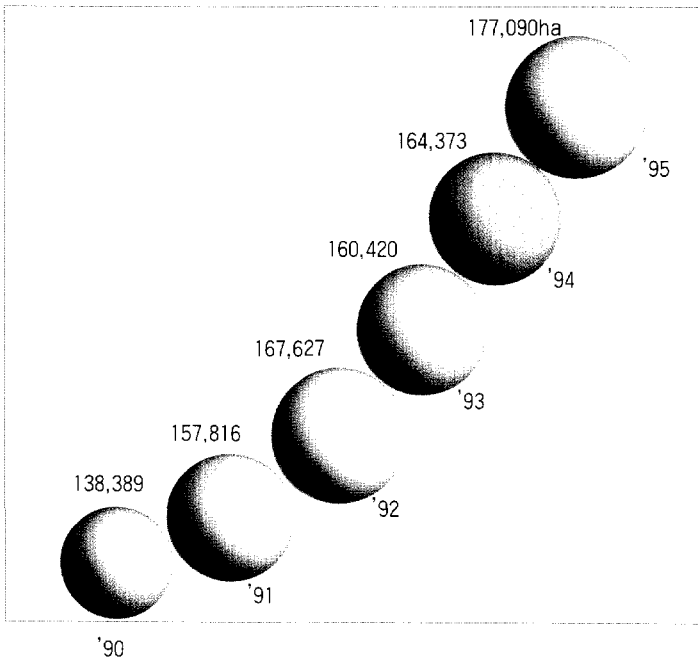
당근 2,694kg/10a



## ■ 연도별 조미채소류 재배면적

### '95년에는 177천ha로 5년전에 비해 28%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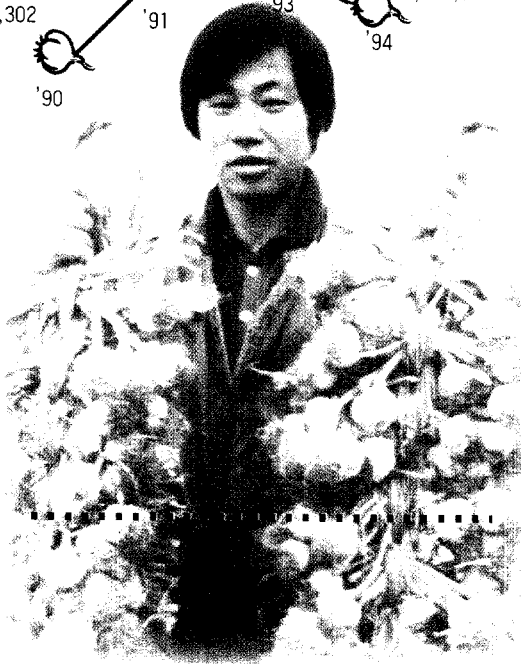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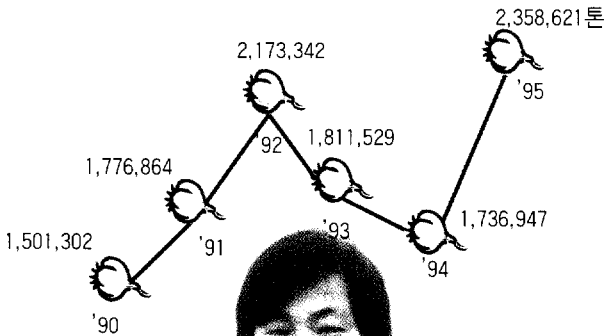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고추·마늘·파·양파·생강등 조미채소류 재배를 위해 사용된 농지는 177천ha로 '90년의 138천ha에 비해 2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조미채소류 재배면적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지역적으로는 전남(44천ha)과 경북(33천ha) 지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조미채소류 생산량

### 2,359천톤으로 5년전에 비해 857천톤이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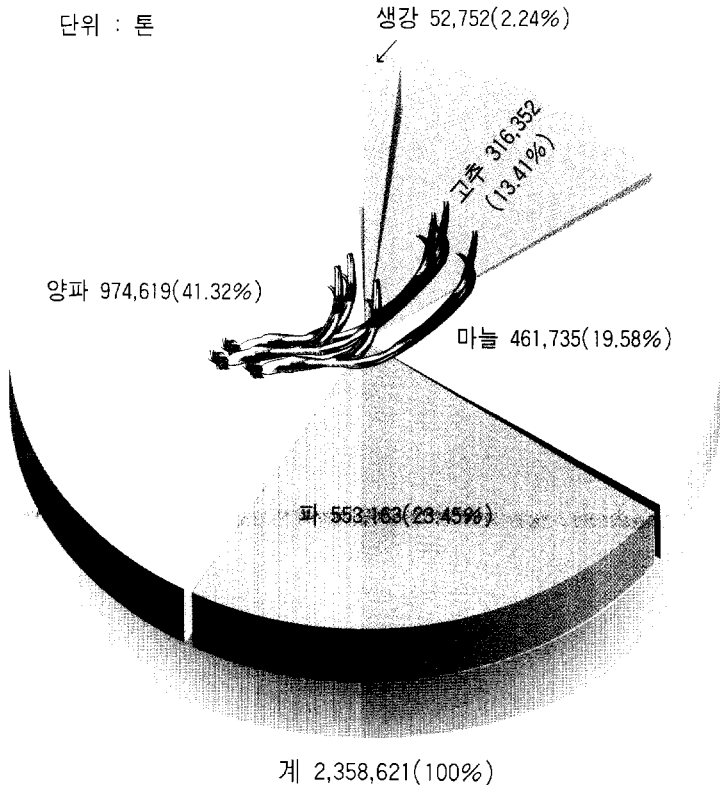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미채소류는 2,359천톤으로 5년전에 비해 857천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939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이 379천톤으로 1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조미채소류 품목별 생산 내역

### 양파가 975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41%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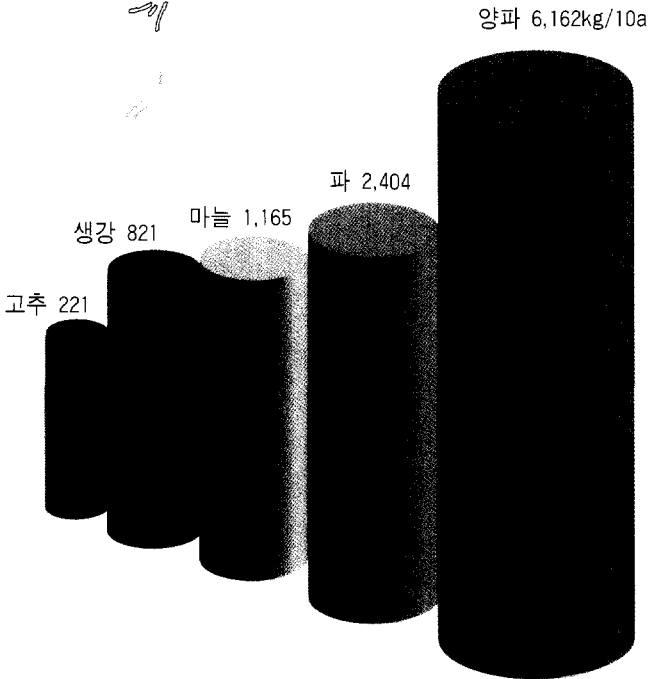
지난 '95년 조미채소류 생산량 2,359천톤을 품목별로 비교해보면 양파가 975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파 553천톤(23%), 마늘 462천톤(20%)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외 고추는 316천톤(포트고추 123천톤)으로 13%를, 생강이 53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 조미채소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양파가 10a당 6,162kg으로 월등히 높은 생산량을 기록

지난 '95년 조미채소류 생산량을 단위면적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양파가 10a당 6,162kg으로 높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가 2,404kg, 마늘이 1,165kg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강은 821kg, 건고추는 221kg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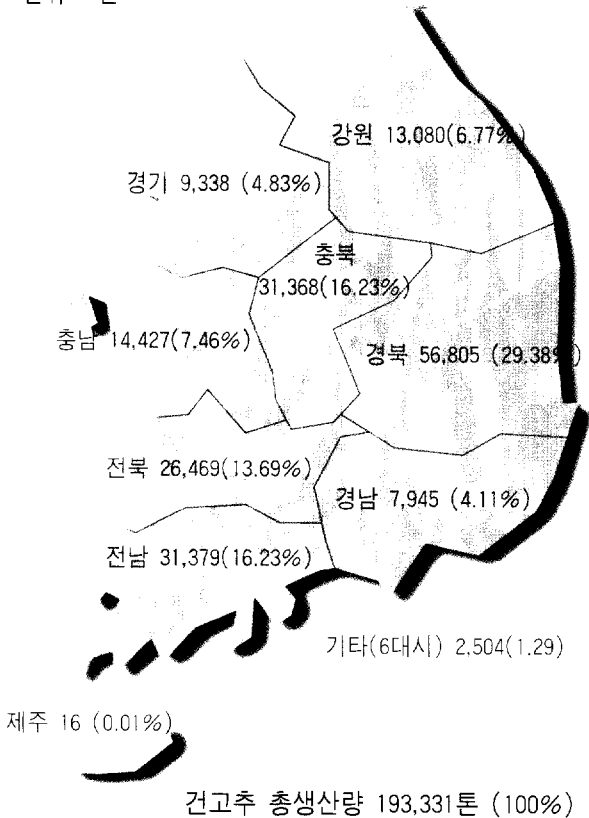


## ■ 지역별 고추 생산량(건고추)

### 전체생산량 193천톤중 29%를 경북지역에서 생산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고추는 전국적으로 193천톤이었으며,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경북지역이 57천톤으로 전체 건고추 생산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다음으로는 전남과 충북이 각각 31천톤 수준으로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이 26천톤으로 약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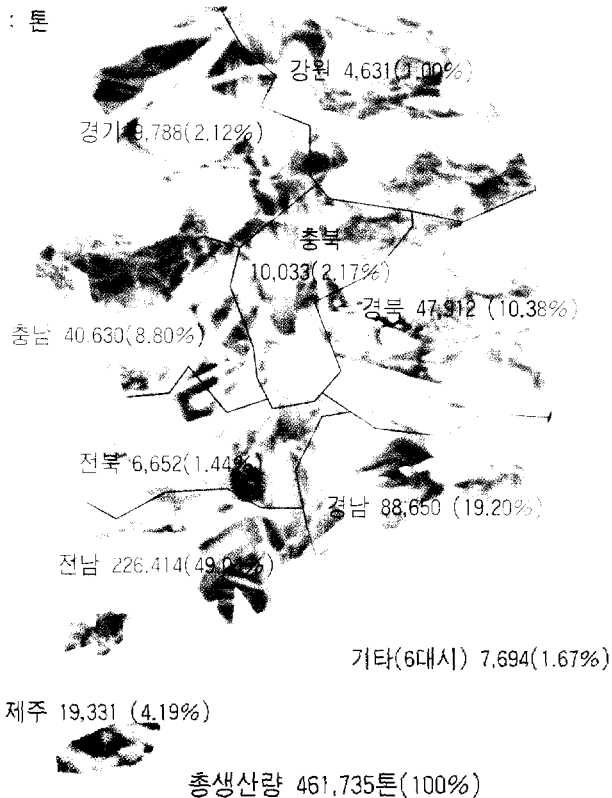


## ■ 지역별 마늘 생산량

### 전남지역에서 전국 마늘생산량의 49%를 생산하고 있어

지난 '95년 한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마늘은 총 462천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남지역이 226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49%를 차지, 마늘 주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지역 89천톤(19%), 경북지역이 48천톤(1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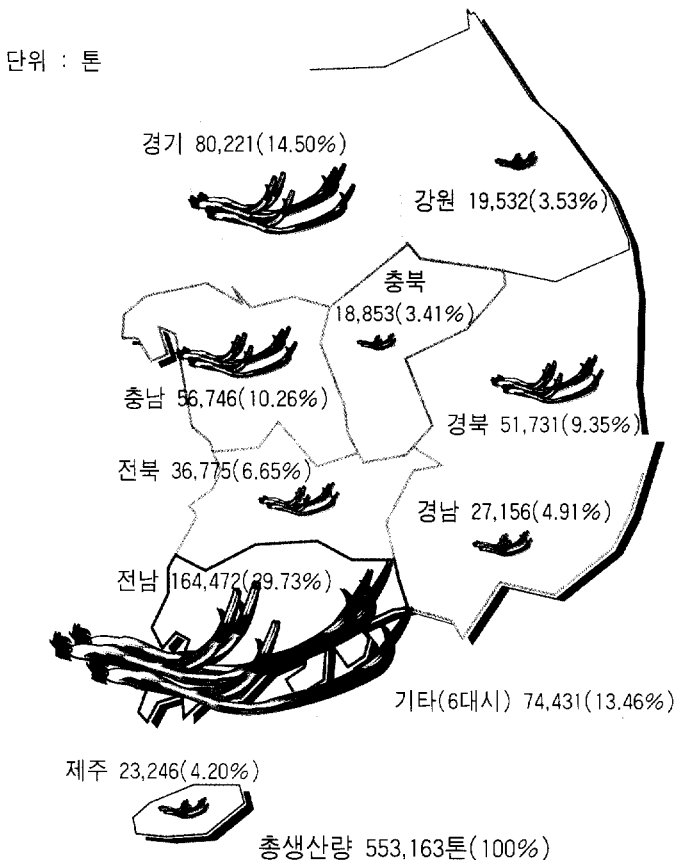




## ■ 지역별 파 생산량

### 전국 생산량의 30%인 164천톤을 전남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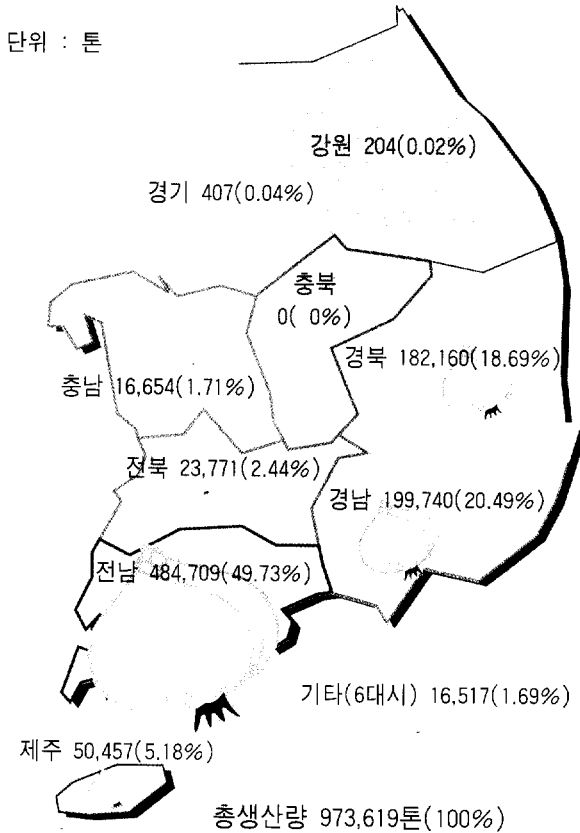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파는 전국적으로 약 553천톤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해 보면 전남지역이 164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80천톤을 생산하여 15%를 점유하고 있고 충남이 57천톤으로 약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 지역별 양파 생산량

### 전체생산량의 89%가 전남과 경남·경북지역에서 생산되어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파는 총 975천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생산량 975천톤의 약 50%인 485천톤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경남과 경북에서 각각 20%, 19%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3개도의 생산량은 전체생산량의 89%로 양파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IV. 과실류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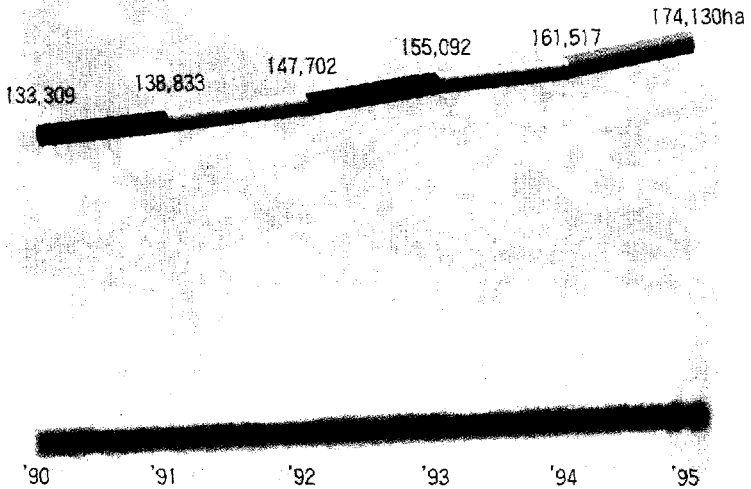
---

- 연도별 과실류 재배면적
- 연도별 과실류 생산량
- 과실류 품목별 생산 내역
- 과실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연도별 사과 생산량
- 연도별 배 생산량
- 연도별 복숭아 생산량
- 연도별 포도 생산량
- 연도별 감귤 생산량

## ■ 연도별 과실 재배면적

### '90년대 들어 연평균 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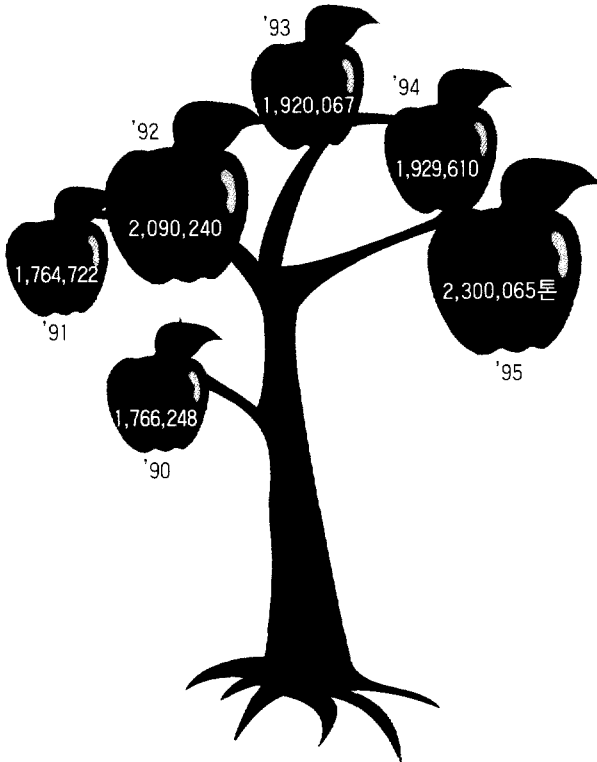
우리나라 과실 재배면적은 소비자들의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90년대 들어 연평균 6%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133천ha 이던 과실 재배면적은 '95년에는 174천ha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65천ha(3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과실 생산량

### '95년에는 2,300천톤으로 '90년에 비해 534천톤(30%)이 늘어나

우리나라 과실 생산량은 작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재배면적의 증가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난 5년동안 약 3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1,766천톤 수준이던 과실 생산량이 '95년에는 2,300천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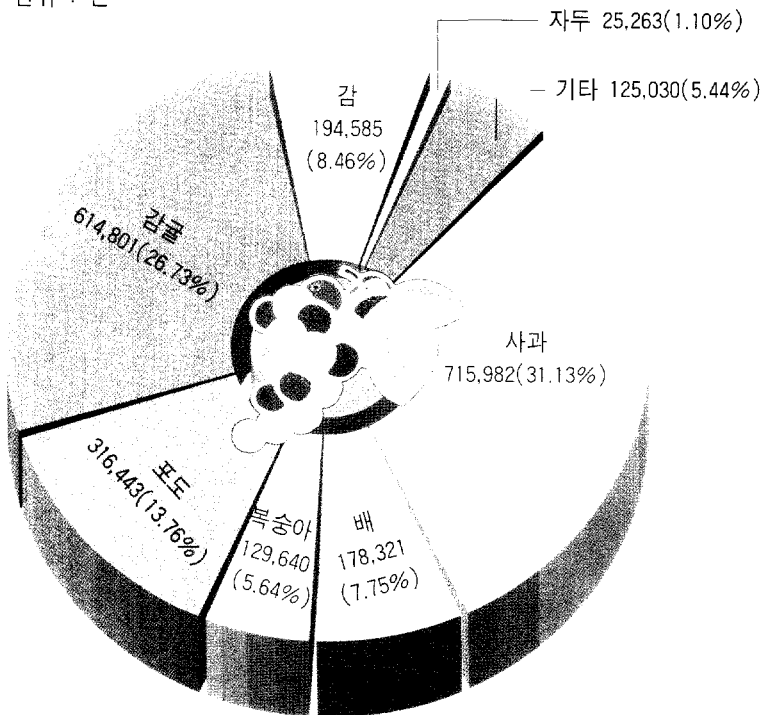


## ■ 과실류 품목별 생산 내역

### '95년 과실생산량 2,300천톤중 사과가 31%, 감귤이 27%를 차지

지난 '95년 우리나라 과실 생산량 2,300천톤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가 716천톤으로 전체생산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감귤(615천톤, 27%), 포도(316천톤, 14%)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배(178천톤, 8%), 복숭아(130천톤, 6%)등은 생산량이 전체 과실 생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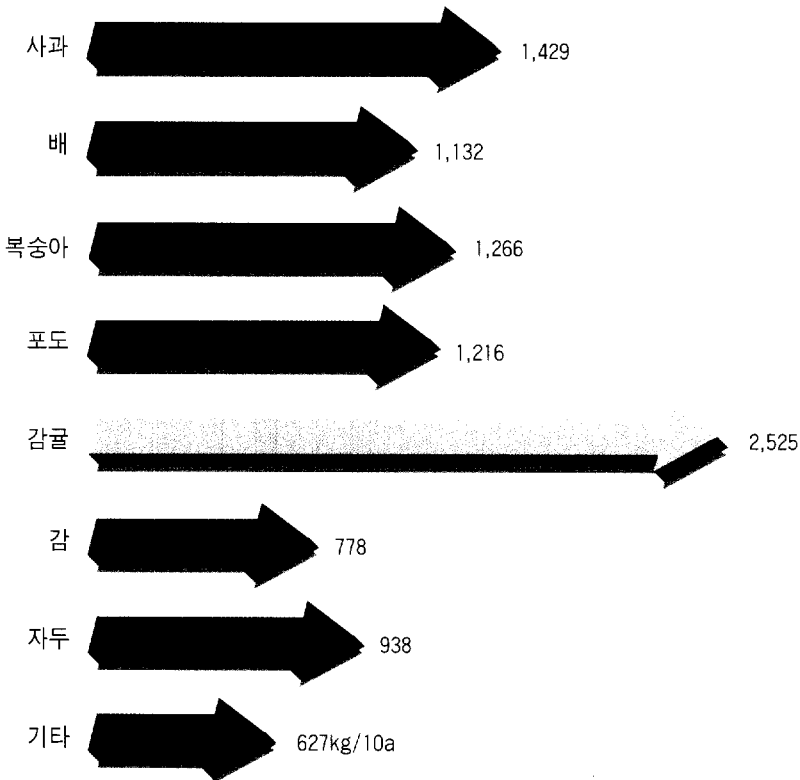


총생산량 2,300,065톤(100%)

## ■ 과실류 단위면적당 생산량

### 감귤·사과가 높은 반면, 감·자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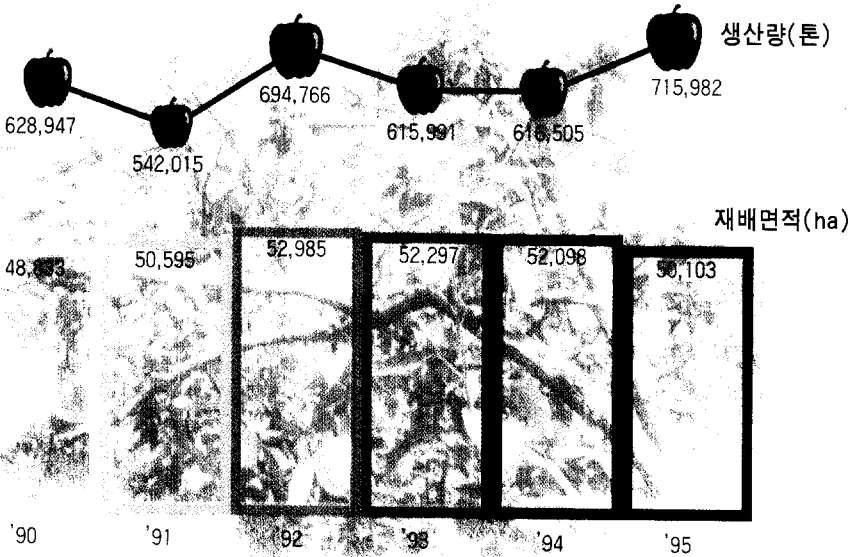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 과실 생산량 2,300천톤을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감귤이 10a당 2,525kg으로 과실중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과가 1,429kg, 복숭아와 포도가 각각 1,266kg, 1,216kg을 기록하고 있으며, 감과 자두가 778kg, 938kg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연도별 사과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재배면적은 줄었으나 생산량은 크게 늘어

사과는 지난 '95년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총 50천ha의 면적에서 716천톤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과재배면적은 '90년 이후 49천ha-53천ha에서 다소의 증감현상을 보인 반면, 생산량은 600천톤대를 유지하다 지난 '95년에는 716천톤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95년에는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2천ha가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약 100천톤이 늘어나 사과농사가 큰 풍작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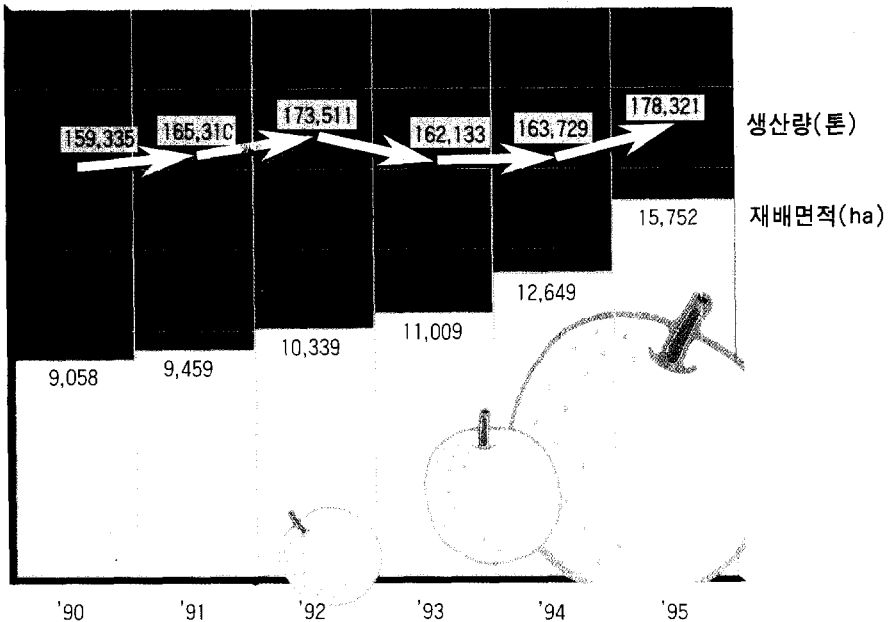




## ■ 연도별 배 재배면적 및 생산량

### '90년대 들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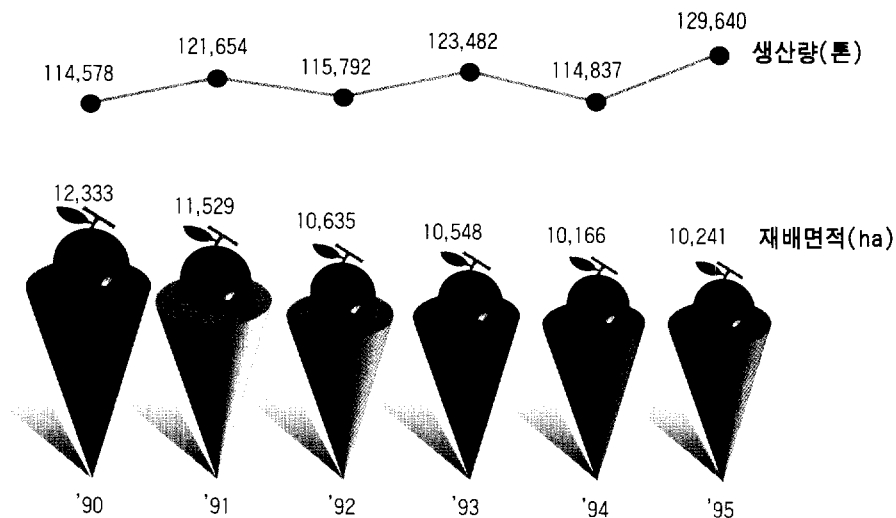
'95년 한해동안 배는 전국적으로 16천ha에서 178천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배는 '90년대 들어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량은 작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지역에서 53천톤의 배를 생산,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복숭아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재배면적은 줄었으나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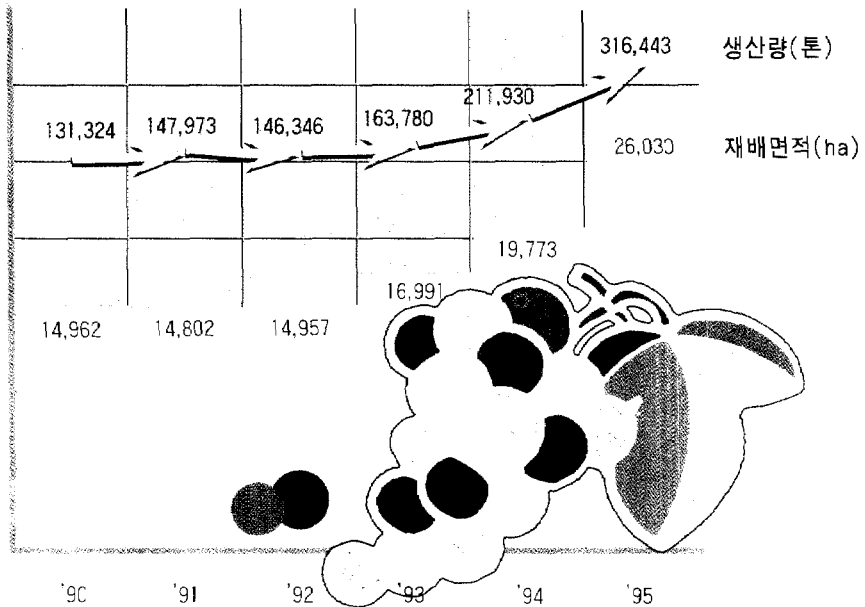
지난 '95년 복숭아는 전국적으로 10천ha에서 130천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복숭아는 '90년대 들어 매년 재배면적이 줄어들다 최근 10천ha 수준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은 큰 변동없이 110-120천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북지역에서 68천톤의 복숭아를 생산, 전체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포도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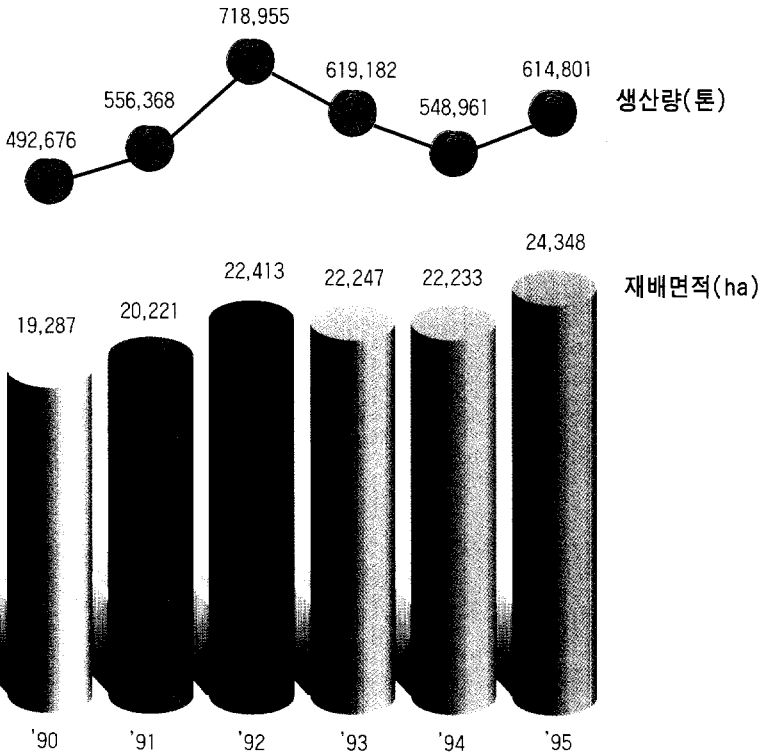
지난 '95년 포도는 전국적으로 26천ha에서 316천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포도는 '90년대 들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크게 늘었는데 특히 생산량은 지난 5년동안 약 2.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북지역에서 전체 생산량의 약 47%인 148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 연도별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량

### '95년 생산량은 615천톤으로 99.8%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어

지난 '95년 감귤은 전국적으로 24천ha에서 615천톤이 생산되었으며, '90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26%, 생산량은 2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감귤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99.8%가 제주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남과 경남에서 0.2%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V. 가축 사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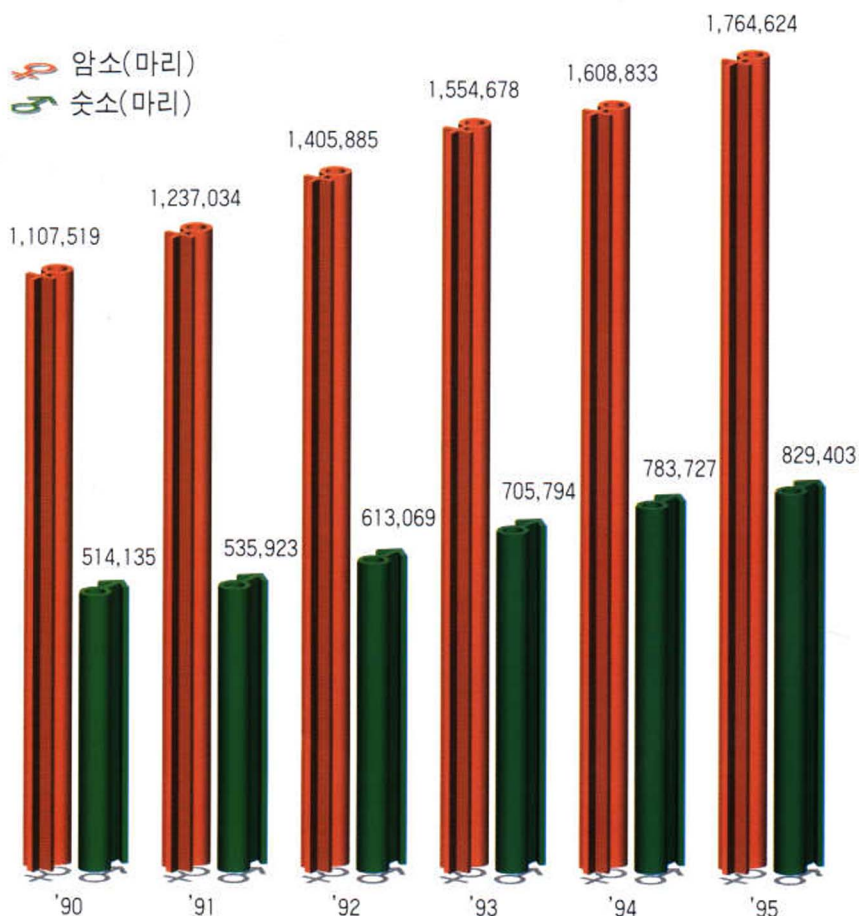
---

- 성별 한육우 사육두수
- 연령별 한육우 사육두수
- 한육우 사육규모별 가구수
- 연령별 젖소 사육두수
- 젖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 돼지 사육규모별 가구수
- 돼지 월령별 사육두수
- 닭 사육규모별 가구수
- 월령별 닭 사육두수

## ■ 성별 한육우 사육두수

### 암소가 1,765천마리로 숫소에 비해 936천마리가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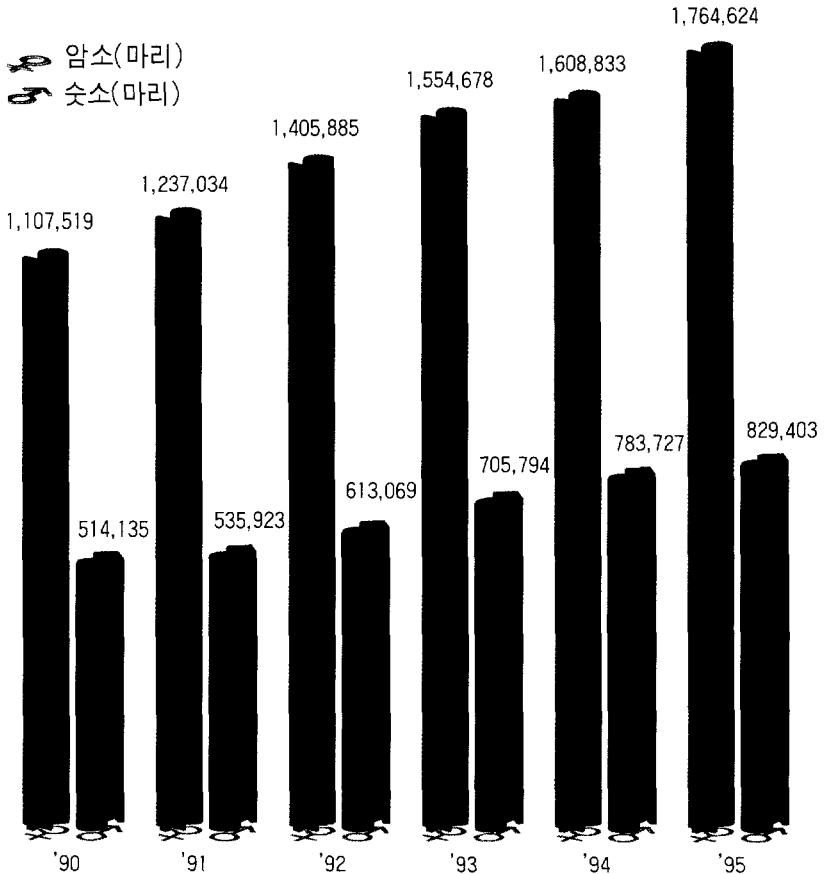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한육우 2,594천마리중 숫소가 829천마리로 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암소는 1,765천마리로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90년에 비해 암수분포는 변함이 없으나 사육마리수에 있어서는 암소가 59% 숫소가 61%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 성별 한육우 사육두수

### 암소가 1,765천마리로 숫소에 비해 936천마리가 많아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한육우 2,594천마리중 숫소가 829천마리로 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암소는 1,765천마리로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90년에 비해 암수분포는 변함이 없으나 사육마리수에 있어서 는 암소가 59% 숫소가 61%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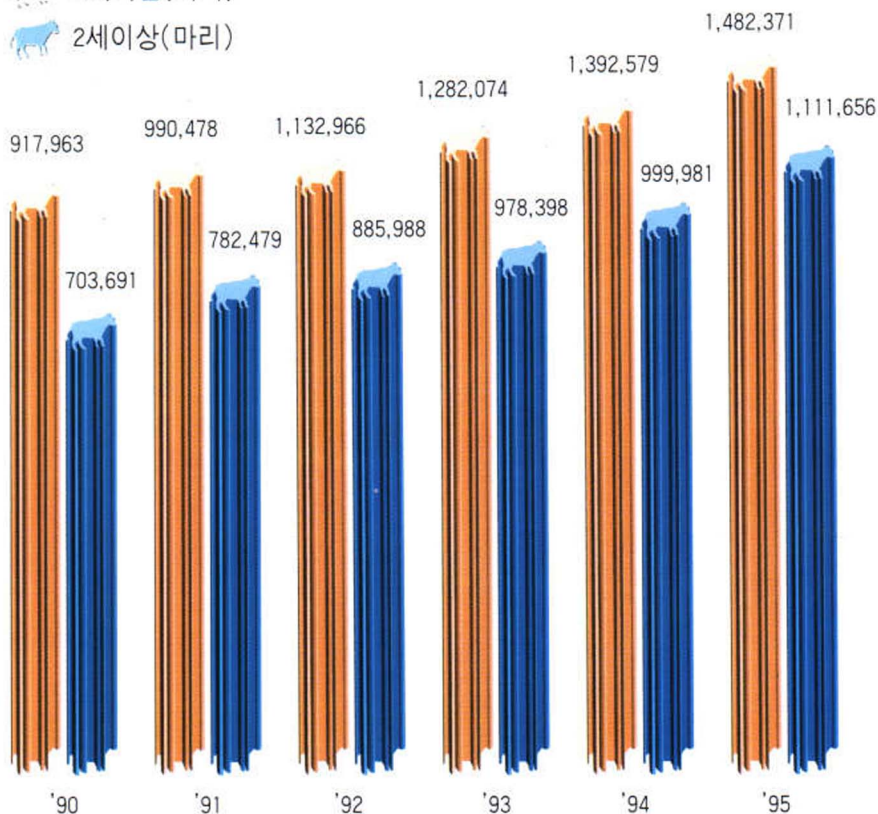
## ■ 연령별 한육우 사육두수

### 2세 미만의 소가 57%이고, 나머지 43%가 2세 이상의 소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한육우 2,594천마리를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세미만인 소가 1,482천마리로 57%인 반면, 나머지 43%가 2세이상인 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세미만이나 2세이상 모두 사육마리수가 '90년이후 매년 10% 내외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세미만(마리)

 2세이상(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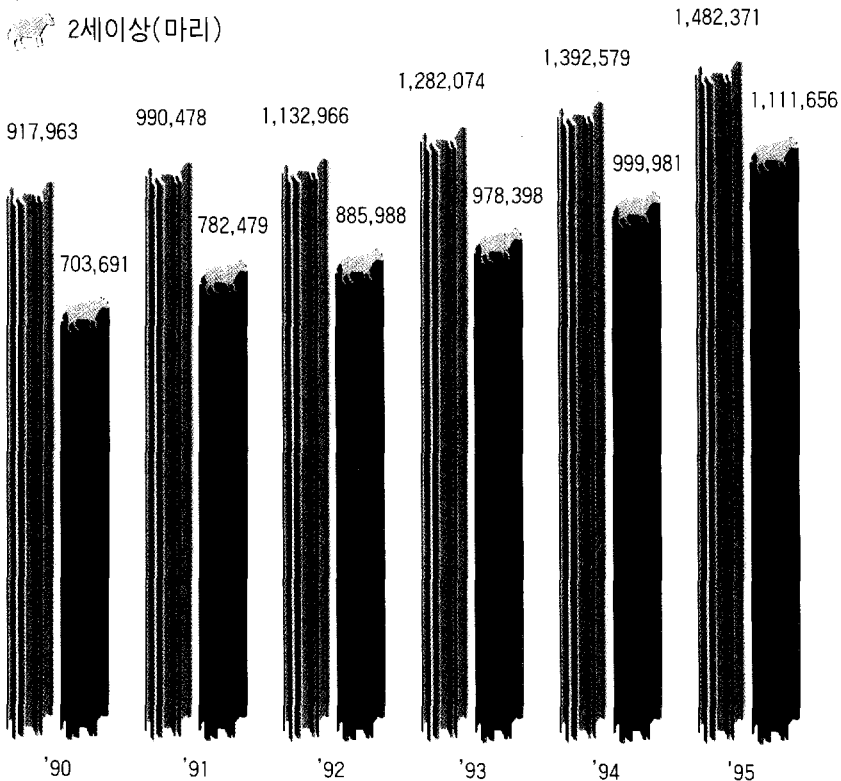
## ■ 연령별 한육우 사육두수

### 2세 미만의 소가 57%이고, 나머지 43%가 2세 이상의 소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한육우 2,594천마리를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세미만인 소가 1,482천마리로 57%인 반면, 나머지 43%가 2세이상인 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세미만이나 2세이상 모두 사육마리수가 '90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세미만(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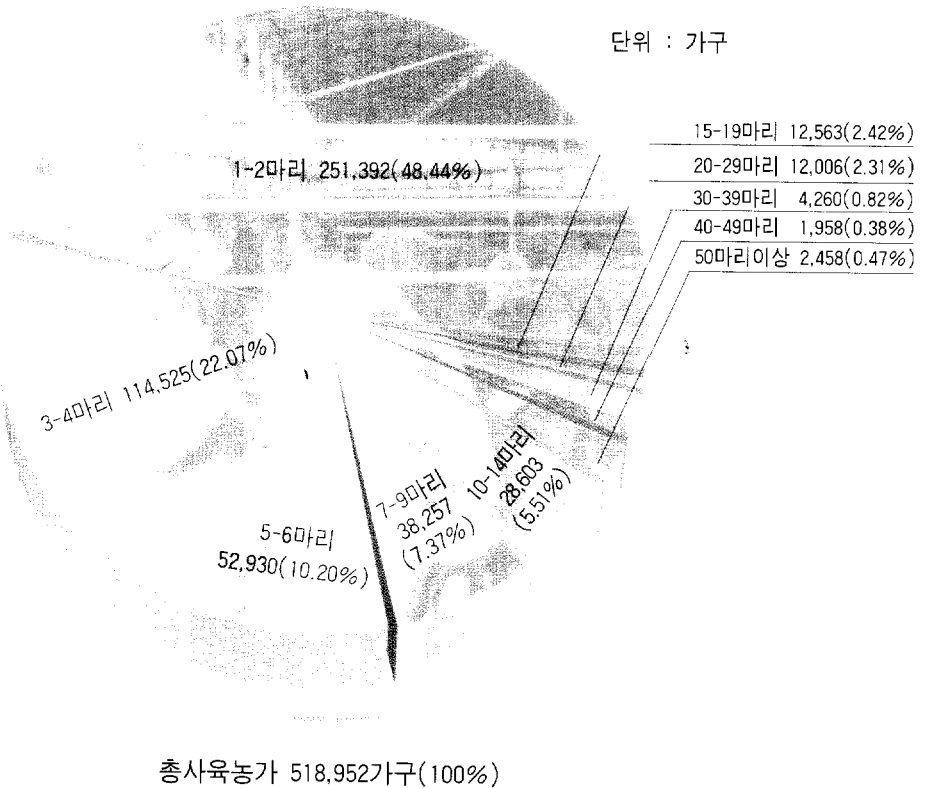
 2세이상(마리)



## ■ 한육우 사육규모별 가구수

###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2,458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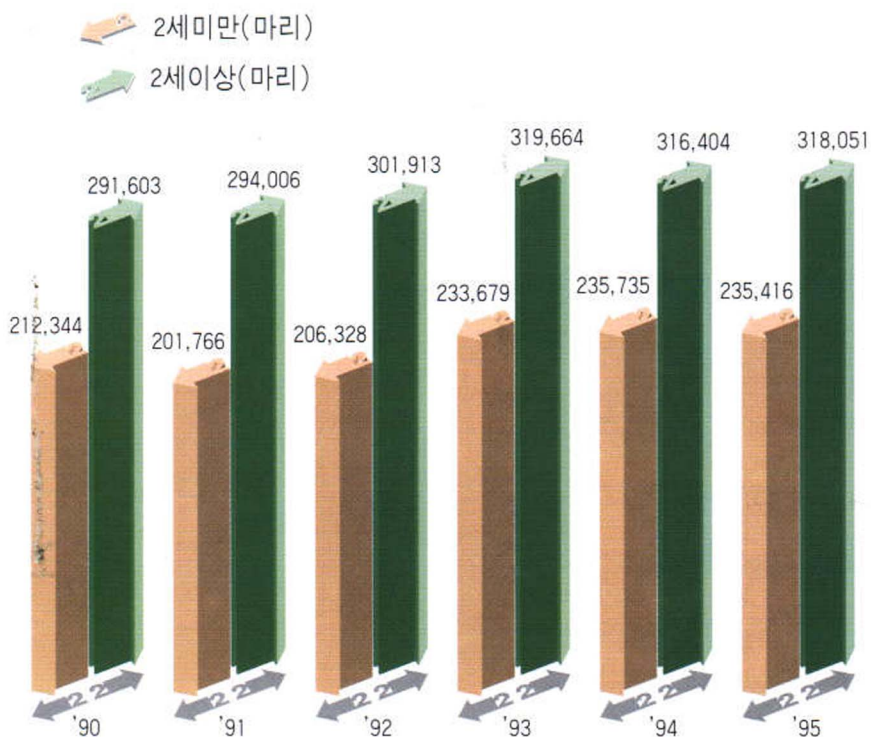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한육우를 사육한 농가는 총 519천농가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48%인 251천농가가 1-2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전체사육농가의 12%가 1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50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2,458가구로 전체사육농가의 약 0.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연령별 젓소 사육두수

### '95년 젓소 사육두수 553천마리의 43%가 2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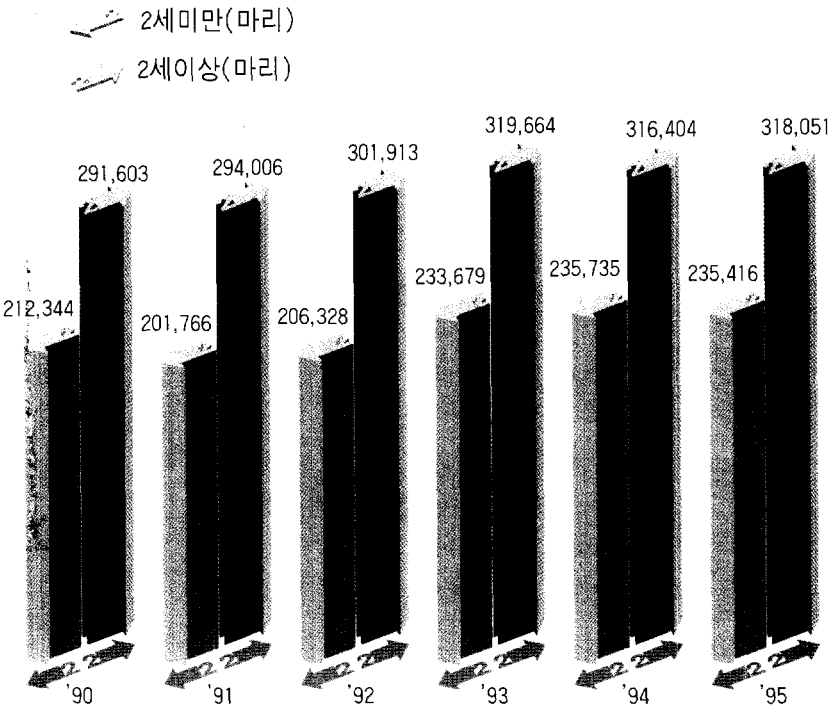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젓소는 총 553천마리였으며 이중 43%가 2세 미만이고 나머지 57%가 2세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젓소의 경우에는 한육우와 달리 2세미만이나 2세이상 모두 '90년이후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 연령별 젓소 사육두수

### '95년 젓소 사육두수 553천마리의 43%가 2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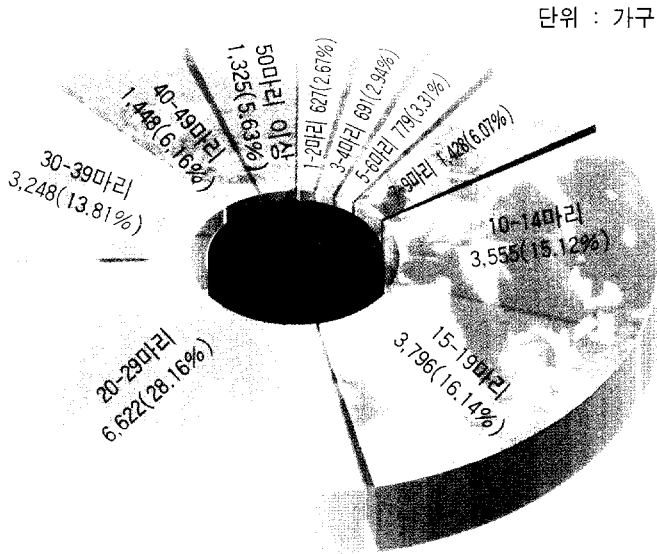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젓소는 총 553천마리였으며 이중 43%가 2세 미만이고 나머지 57%가 2세이상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젓소의 경우에는 한육우와 달리 2세미만이나 2세이상 모두 '90년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 젖소 사육규모별 가구수

### 전체사육농가의 85%가 10마리 이상, 26%가 30마리 이상을 사육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젖소를 사육한 농가는 총 23,519가구였으며, 이중 약 15%인 3,525농가가 1-9마리의 사육규모를 보인 반면, 85%가 1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30마리 이상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6,021가구로 전체사육농가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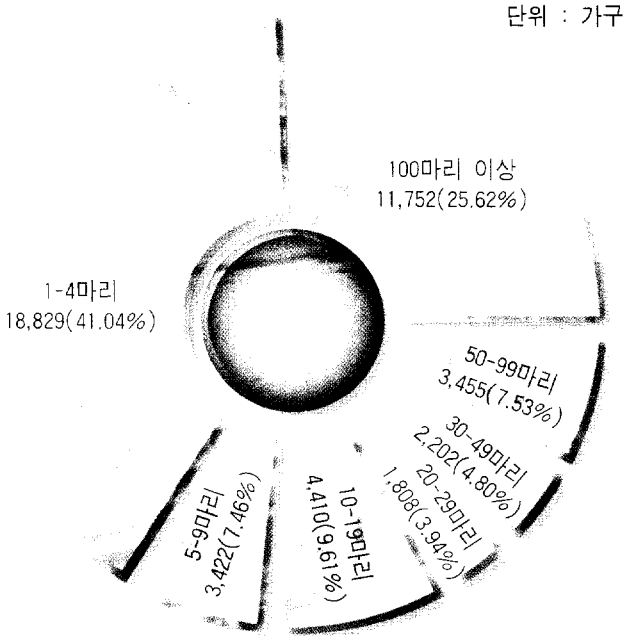


총사육농가  
23,519가구(100%)

## ■ 돼지 사육규모별 가구수

### 전체사육농가 46천가구의 26%가 10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어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사육한 농가는 총 45,878가구였으며 이중 약 49%인 22,251 농가가 1-9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1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15,207가구로 33%, 특히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도 11,752농가로 전체 사육농가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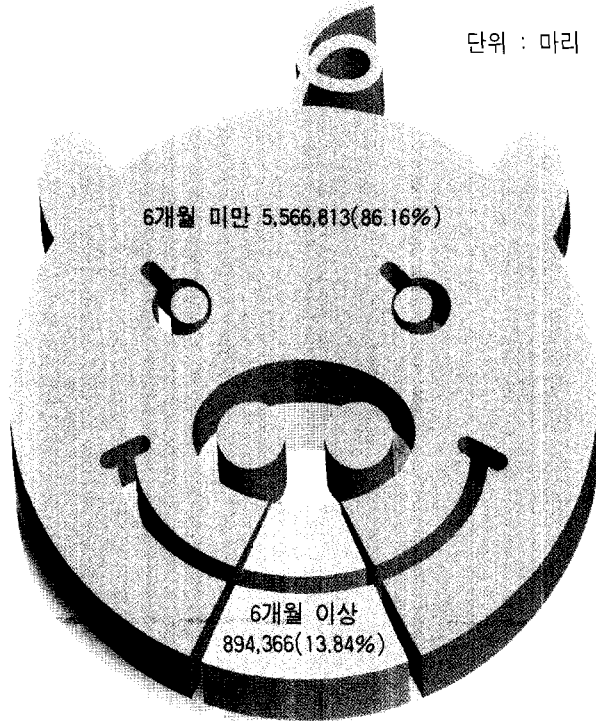


총사육농가 45,878가구(100%)

## ■ 돼지 월령별 두수

### '95년 전체사육두수 6,461천마리의 86%가 6개월 미만의 새끼돼지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돼지 6,461천마리를 월령별로 비교해보면 이중 86%인 5,567천마리가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는 '90년대 들어 6개월미만의 새끼돼지나 6개월 이상의 돼지 모두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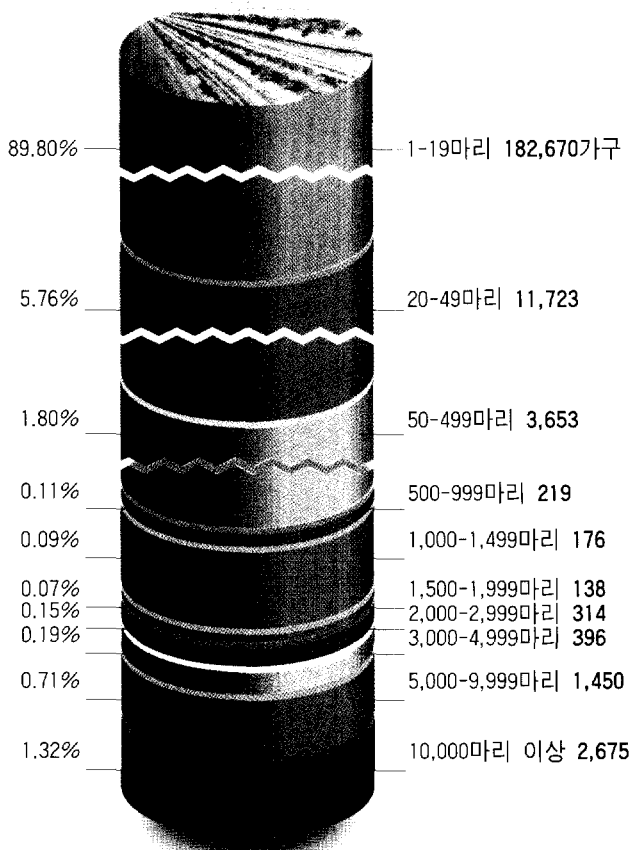


계 6,461,179마리 (100%)

## ■ 닭 사육규모별 가구수

### 10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사육농가가 2,675가구로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닭을 사육한 농가는 총 203천농가이며 이중 약 90%인 183천농가가 1-20마리의 닭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약 9천농가이며, 1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도 5,149 농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0천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사육농가도 2,675 가구로 전체사육농가의 약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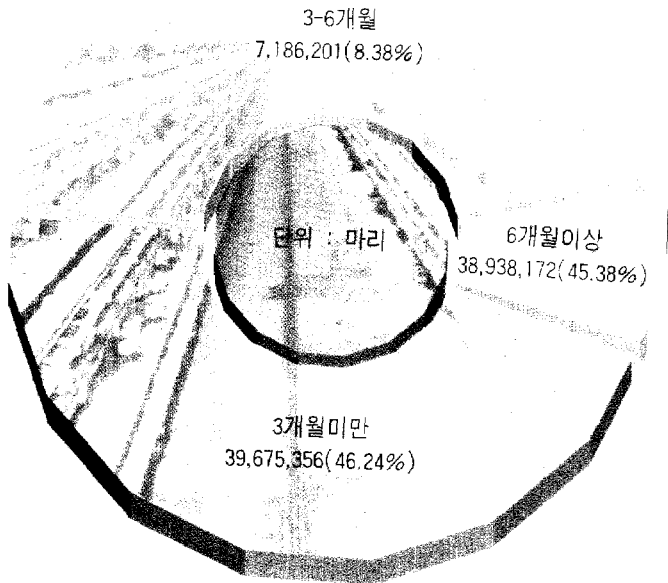
총사육농가 203,414가구 (100%)



## ■ 월령별 닭 사육두수

### '95년 사육두수 85,800천마리의 46%가 3개월 미만의 닭

지난 '95년 우리나라에서 사육된 닭은 총 85,800천마리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약 46%인 39,675천마리가 3개월 미만의 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월인 닭이 7,186천마리로 8%, 그리고 나머지 38,938천마리가 6개월 이상된 닭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 85,799,729마리(100%)